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신무기

1주차	일시	12월 28일 19:00 장소명 투썸플레이스 노원문화의거리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정현 (2111154)	○
		이세현 (2011048)	○
		김민상 (231124)	○
나도현 (2331124)	○		
진도	도서명: 마음	진도페이지: 전 페이지 감상문 합평, 각자 정해온 질문 나누기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나도현, 최정현, 김민상, 이세현]</p> <p>토론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자 써온 감상문 합평</li> <li>2. 각자의 질문 및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공유하기, 작품 속 상징 찾기</li> <li>3. 작품 배경 조사해오고 이야기 나누기</li> </ol> <p>절대론적 관점- 소설의 서술자, 시점, 문체 등의 표현법 표현론적 관점-작가의 내면 심리, 정신세계, 가치관, 성장 과정, 가족관계, 생활환경, 취미, 종교, 영향 받은 사상, 작가의 창작 의도, 창작 동기, 작가의 또다른 작품 (상호 텍스트)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 제도, 역사적 상황, 생활상, 시대상, 사회상</p>		

효용론적 관점- 독자가 얻은 깨달음, 교훈, 감동, 흥미, 미적 쾌감, 반성, 독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인식, 태도의 변화

### 1-1. 김민상의 감상문 합평

제목: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 해부

‘마음’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본 국민 소설이며, ‘도련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소세키의 대표작이다.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넘는 소설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마음’이 다루는 소재가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인간의 본성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소세키의 ‘마음’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말한다. “사람은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갑자기 악인으로 변하니까 무서운 거네.” 이 대사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선생님의 관점과 소세키의 통찰을 잘 알 수 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를 다루던 중, 언급된 내용으로 어떤 일이란 일반적으로 독자에게 금전적 문제, 즉 ‘돈’에 대한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대사는 이익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이 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일’이 아니라 ‘갑자기’이다. 사람은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세키는 지적하고 있다. 작중 선생님은 k가 하숙집 아가씨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자 갑자기 돌변한다. 가장 확실히 선생님의 돌변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선생님이 밤중 자살한 k를 처음 발견한 장면이다. 자살한 친구를 보고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k의 유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친구의 유서에 자신의 배신에 대한 언급이 담겼을지 두려워하고 하숙집 가족들에게 폭로될까 두려워한다. 동맥이 끊어져 길게 튕 펴자국은 유서를 확인한 다음에야 눈에 들어온다. ‘마음’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명백히도 선생님은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이 아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은 근원적으로 친구의 죽음에 대한 가책으로 죽음까지 이르게 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갑자기 인간성을 상실하고 악인으로 돌변했다. 소세키가 ‘마음’을 통해 지적하고 싶던 인간 본성이란 이러한 것이다. ‘마음’에는 선생의 입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통찰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다. “예전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에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올리게 하는 것이네.”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 자신의 죄(k를 기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계심, 그리고 언젠가 죄가 폭로되었을 때 받을 경멸에 대한 경계로 읽힌다. 그러나 인간 불신 혹은 인간 혐오(자기혐오를 포함한다.)에 가까운 선생님의 사상이 과거의 두 인물, 작은아버지와 k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 문장을 k와 선생님의 관계에 대입해서 읽으면 흥미롭다. 과거 k에 대한 선생님의 감정은 미묘하게 묘사된다. 경외심과 동정심을 동시에 갖고 하숙집에 들어가서는 열등감으로 해석될만한 장면도 여러 나온다. k와 선생님의 관계에서 무릎을 꿇은 기억이란 k에게 경외심을 품었던 마음이고 머리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란 열등감으로 충동질해 k를 죽음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종장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선생님과 k, 그리고 ‘나’는 공통된 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고향의 상실이다. 작은아버지와 불화로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않은 선생님과 거짓말로 인해 두 가족에게 절연을 당한 k의 자리를 아버지의 임종을 내팽개치고 상경한 ‘나’가 계승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시작부터 이어진 사제 관계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나’에 대한 부분으로 작품이 완결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마음’이 선생님의 편지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명백히 1, 2장에서 흥미로운 인물인 선생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3장에서 모든 복선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1, 2장에서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서사는 단지 선생님 서사에 대한 부속적 부분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잘 만들어졌기에, 선생님의 유서를 읽은 후 ‘나’에 대한 언급 없이 작품이 끝난 점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세현: 예전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에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올리게 하는 것이네. 라는 명대사를 인용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이 명대사는 선생님이 작은 아버지에게 배반을 당했을 당시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닌가? 민상님의 해석과 내 해석이 다르다고 느꼈다.

최정현: 나 역시 마찬가지다. 세현님 말씀처럼 작은아버지에게 배반 당했을 당시의 기억을 이야기 한 대사라고 생각한다. 또 잘 쓴 서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

은 감상문이다. 하지만 ‘갑자기’라는 단어에서 시작하여 내용을 서술했다면 다른 감상문들과 달리 차별화된 창의적인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서 아쉬웠다.

나도현: 나 역시 작은 아버지에게 배반당한 선생님의 마음을 다르게 민상님이 해석한다고 느꼈다. 또 악인에 대한 내용을 써서 글이 더욱 짜임새있는 감상문이 되었다고 느꼈다.

## 1-2. 최정현의 감상문 합평

제목: 의타적 믿음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현대에는 이런 말들이 영화에 쓰이고 수필집이 유행을 탄다. 과연 100년전 시대는 누군가의 마음과 감정이 중요했을까? 이 책은 당시 봉건적 질서, 관습이 당연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믿는다면, 나라를 믿고, 종교를 믿고, 국왕을 믿고, 선배(선생님)를 믿고, 의타성에 갇힌 시대정신이 난무했다. 나 자신만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배반당하지 않으려 애썼던 선생님은 고결한 엘리트로 묘사된다. 하지만 나 자신을 믿던 선생님은 결국 죄의식에 갇히고 만다. 즉, 선생님의 배신 당한 마음이 아닌 배신한 마음에 더 큰 초점을 두는 장면을 통해 ‘죄의식’에 방점이 찍힌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급변하는 세계관 속에서 무기력했던 엘리트의식과 죄의식이 혼재된 채로 살아가는 지식인의 일상세계를 나타냈다고 본다. 엄격한 윤리의식, 예고이즘만을 이야기해야 했다면 마음이라는 책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 선생님은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나 자신조차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되며, 우리 인간은 의타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지하고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누구를 믿었던 걸까?

K를 믿었다고 본다. K라는 인물은 결코 자신의 암울한 현실에 비관하여 죽는 인물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존귀한 인물로 K를 대한다. K 역시 선생님을 존귀하게 대했다. 어쩌면 K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 의지할 사람은 몇 없었고 선생님과 K는 부모와 나라로부터 신경 쇠약만을 얻을 뿐이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점차 쌓여 서로 없으면 안되는 사이로까지 발전한다. ‘나’에게 동성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이 후에는 이성에 대한 마음이 될 것이라는 요상한 선생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의존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이 이성인지, 동성인지, 국가인지, 종교인지는 각기 다르다. 이 점에서 선생님의 마음이 온전히 K에게 어느새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죄의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죄의식이 없었다면 선생님에게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K를 그럴 방도가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타성이라는 본성이 죄의식이란 감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할까?

노기대장, 천황의 죽음으로 메이지 시대가 끝났듯이, 선생님의 죽음으로 아내를 향한 고결한 사랑이 유지되고 친구를 향한 고결한 우정이 유지된 채 선생님의 믿음이 아름답게 마무리 된다. 만일 죽음, 희생 따위가 없었다면, 믿음의 의타성이란 마음, 즉 본성이 인간의 배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서술되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가 예수의 죽음을 굉장한 모티브로 삼지 않았을까 싶다. 성경에서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 배반하고 싶지도, 배반 당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선생님 역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마음을 더이상 비관하기보다는 죽음을 통해 끝냈다. 작가는 오랫동안 온갖 잔병과 신경 쇠약, 일

본문화에 의해 자살이란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저 죽을 때가 된 것처럼 말이다. 35년을 참은 노기대장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역시 죽음이란 것을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의타적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부모? 종교? 연인? 친구? 이처럼 나쓰메 소세키는 이 책을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한다고 한다.

김민상: '의타적'이란 표현에 굉장히 공감되는 감상문이었다. 무엇보다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 책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예수의 희생과 선생님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이다. 선생님을 굉장히 신격화해서 감상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세현: '의타성'이 '죄의식'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 공감되었다. 그러나 민상님 말씀처럼 예수, 원죄와 같은 상징들이 이 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다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도현: 엘리트 의식에 대한 언급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는 고결한 마음에 공감되었다.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되게 오래 고민한 흔적이 돋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 1-3. 이세현의 감상문 합평

아버지의 병세 악화던, 선생님의 옛사람과 관련된 발언이던. 나에게도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옛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로 받을 밑지 못하는 어려움도 공감하기 어려웠다. 내게 유독 공감을 샀던 대목은 선생님의 예전 이야기. 소설을 읽으며 그에게 들러 쌓여 보이는 베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었다. 그 이야기는 선생님의 말투와 편지 속 서두처럼 담담하게 전해지는 것 만큼의 보통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아마 그 속에 있는 '자살'이라는 무겁고 어두운 키워드가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담하고 있는 마지막 파트를 두껍게 깔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죽음을 문 앞까지 두고 연명했다. 끝끝내 삶을 살며 자신이 살며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정신이 들 때 고마움을 남겼다. 잘 키워온 자식들에게 보살핌을 받아가며 편안하게 예정 되어 있던 죽음을 언제라도 맞이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런 것에 비해 선생님은 자신이 감사함을 느꼈던 그 누구에게도 웃는 얼굴로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그에게만 예견 되어 있던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선택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이었다.

주인공은 그런 선생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드렸을까.

자신이 존경하고 선망하던 누군가의 죽음이란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주인공은 기차에 몸을 싣고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소설은 그렇게 끝나지만 주인공이 선생님의 사연을 모두 접한 뒤에는 어떤 마음였을지 궁금했다. 기차에 내리며 선생님의 생가에 방문하였을까 아니면 다시 간다고 한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끝없는 추궁과 눈물만 보일 사모님만 있는 생가를 뒤로 한 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보필하려 바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까. 나는 전자라고 생각한다. 주인공과 선생님은 어느정도 닮아 있는 구석이 있었다. 형으로부터 느끼는 열등감,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시간의 기회를 뒤로 한 채 편지 상으로는 이미 죽음을 확정하고 맞이한 선생님에게 가는 무모함. 선생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성의 감정으로도 자신을 낮게 보며 모순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소설이라고 하여 단편적인

사건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꽤나 입체적인 선생님의 성격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곧 인간이 대표하고 있는 '모순'이라는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사람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남을 욕할 처지도 아닌 것이 공인의 단편적인 실수를 보고 대중과 섞여 욕하고 그를 폄하하고 마음대로 용서하는 과정들이 나에게 있어선 극히 모순적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같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본디 인간은 하나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행동들을 일치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생님은 죽은 k로부터 얻은 전리품인 자신의 아내와 살아옴과 동시에 그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였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가도 숨겼고 잘못된 행동임을 앎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은 작은아버지에게 배신 당한 그 시점부터 모든 책임을 작은아버지에게 맡기며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함과 동시에 '여자'라는 대표적인 인물인 지금의 아내만 신처럼 여기며 믿었다.

주인공은 이러한 선생님의 모순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을 감사히 생각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죽음은 그와 친해지는 마지막 단계가 되었으니 말이다.

최정현: 먼저 선생님의 모순성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 모순적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예시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선생님의 모순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의식에 빠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민상: 모순에 대한 이야기는 좋았지만 예시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했다. 공인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공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혐오했던 타인의 행동을 닮게 되어 죄책감에 빠지는 캐릭터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견해로 책을 감상한 적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인 것 같다.

나도현: 주인공 '나'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감상같아서 공감이 되었다. 주인공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나역시 고민했기 때문이다. 또 주인공은 이 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인지도 내내 궁금했다. 우리가 주인공의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해보는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 1-3. 나도현의 감상문

선생님의 편지가 주된 내용이라 앞에 내용을 다 까먹은 느낌. 남겨진 아내분, 따님이 불쌍하네요. 보는 내내 몽근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쟁취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불행했다면 그냥 그때 k의 정신을 파고드는 언행을 하지 말고 놓아줬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선생님 본인이 k보다 건강하다 생각이 돼서.

상당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선생님이신데, 나에게는 갑자기 그렇게 교류? 를 허락한 게 의아함.

뭐랄까 최근에 본 t식 대화라는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미미미누) 이걸 뭐랄까 너무 생각이 많고 조심조심하는 f식 대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빡칩니다. 저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할지.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본다고 하였는데, 아버지와 비교가 되어 묘사될 만큼 마음속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었을 텐데 그 선생님도 아버지도 비슷한 시기에 죽다니 안타깝습니다. 주인공의 맨탈이 걱정됩니다.

K가 자살을 한 이유는 자신의 길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는데, 여색에 눈을 뜬



자신에게, 그리고 '따님'을 친구에게 빼앗겼을 때 느낀 자신의 감정에 실망하여 자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선생님이 k의 죽음을 목격한 직후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리 한번 안 내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유서를 먼저 열어볼 생각을 한다니 이것 또한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랄까 추함의 극한이랄까.

'나' 라는 대학생의 시점으로 서술이 됩니다.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문체는, 전체적으로 번역에서 오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물에 잘 맞는 문체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가볍다면 가벼운 무겁다면 무거운 청년의 어투와 생각이 많고 자신을 잘 들어내려 하지 않는 보수적인 선생님의 고지식하고 예를 차리는 어투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가세가 기울어 여기저기 입양을 보내지며 생활했던 작가의 유년 시절 경험이 작품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학도 갔다는데, 학비 문제로 신경쇠약에 시달렸다는 경험은 k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나 <도련님>등 여러 다른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일본,

전쟁의 배상금과 식민 지배로 경제가 급성장.

도시화도 급격히 됨. 경제가 성장함과는 별개로 시민들 개인들이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기업과 개인의 경제 체감이 달랐고, 그 시차로 인해 악성 재고가 쌓이게 됐다. 이는 불황을 야기.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도쿄 같은 중심지에 대한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묘사도 이해가 감

감정과 이성은 실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과한 신념은 아집이라는 것도 생각이 드네요. '죽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를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청년 시절 자신이 겪은 '돈'과 '사람'에 관한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부분이 비극으로 몰아가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장티푸스로 부모님을 연달아 잃어 몸과 마음 모두 지쳐있는 상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인 작은 아버지가 유산을 노렸다는 사실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임이 확실하다. 오랫동안 봐온 가족이 부모를 잃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건 커녕 돈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사실은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가지게 할 만하다.

친척에게 이용당할 뻔 했을 당시, 선생님은 '인간'에 대한 혐오는 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은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야.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이구나.'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시즈와 K군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결과 K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상황이 좋지 못해 자신이 거두어준 K군이 자신이 짝사랑 하던 하숙집 딸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에 자격지심과 극심한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럽고 끔찍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아내에게 K군과 있었던 일화들을 죽어서까지 숨기는 모습에서 자기혐오가 최고점에 도달했었다는 생각을 한다.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이고, 의지해도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인간관계의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K군과 선생님의 문제는 이 책의 제목인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음이란 쉽게 다치지만 쉽게 치유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둘은 서로의 마음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둘이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을 살다보면 나의 '마음'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다. 이때는 누군가 나를 치유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자주 바라보고 돌봐주는 것이 마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나아가 나의 마음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냉담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민상: 가장 솔직한 감상이라고 생각한다. 나역시 등장인물의 행동이 지나치게 섬세하다 못해 일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 자체가 조사를 하다보니 일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가 많이 포함 되었다고 느꼈다.

이세현: 나역시 주인공 '나'가 굉장히 걱정되었다.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과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작품에서 다뤄졌다면 더 설득력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최정현: 나는 세현님과 도현님의 생각과 반대로 별로 주인공 '나'의 심정이 걱정되지는 않았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명예로운 죽음, 자살과 같은 문화들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존재도 그리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다.

## 2. 각자가 가지고 온 장면 및 질문

- 선생님이 k를 기만하지 않아도 하숙집 딸과 이어질 수 있었을까?
- 소설 내 질문이지만 선생님이 자살을 할 때 아내한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상처를 주인공에게 이야기 한 이유?

이세현: 일단 하숙집 딸과 이어질 가능성은 없었다고 본다. 선생님 자체가 K보다 성품이 소심한 구석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살한 것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처를 주인공에게만 이야기 한 이유는 주인공을 선생님이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현: 세현님 생각에 완전히 반대한다. 선생님은 주인공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다. 즉 선생님은 전혀 주인공을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정현: 나 역시 도현님 생각에 동의한다. 주인공은 마음을 연 것이다. 아마 자신의 후배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주인공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아내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아내를 지켜주기 위함일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과의 추억과 결혼에 결함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김민상: 도현님과 정현님의 생각에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다. 즉 아내만 보면 살해현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이를 아내에게 이야기하기엔 창피하기 때문에 끝까지 숨겼다고 생각한다.

### 3. 작품 배경 조사해오고 이야기 나누기 (일본에 대해)


김민상: 소설치고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약간 일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 좀 있어가지고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메이지 정신 순사 뭐 이런 부분 나올 때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좀 핵심 소재인 거 같아 가지고 이해하기 좀 난해했던 부분은 여기서 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가령 아까만 해도 아버지와 선생님의 상징으로서 대비됐는지 비슷한 부분이 일본인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똑같은 사람 언급하잖아요. 노기대장같은 사람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다른 걸 언급하고 천황 죽었을 때 같이 자살한 사람 언급하면서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일본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벽히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정현: 근데 저는 작품 제목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불려고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같고, 선생님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일본, 그때 지식인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잘 드러나 있는 책이고 근현대 작품이지만 현대에도 되게 우리가 잘 사유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자기 고백 그런 게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도현: 많이 배우고 시야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이죠. 일본의 배경도 조사했지만 그것보다 작가의 배경이 이 K의 가정환경과 닮아있더라고요. 이 점에서 작가의 의도나 외로움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생님의 편지라는 부분이 되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세현: 저는 제목을 좀 되게 되게 중요시 보는 편인데 마음이라는 게 일단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마음이라는 게 좀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선생님의 마지막 자살을 근데 어떻게 보느냐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같고요. 선생님의 자살이 좀 회피해서 그냥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 자체가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좀 재밌을 거 같고, 그다음에 뭔가 좀 알려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초반 부분에 이제 서양이 맨 처음에 같이 있었던 거지 사장님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따라가고 대화 나누고 뭔가 수수께끼 말 수수께끼 같은 말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일단 되게 몰입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구문명이 들어오던 일본의 상황이 잘 반영된 부분들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일시	1월 2일 19:00 장소명 투썸플레이스 노원문화의거리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정현 (2111154)	○
		이세현 (2011048)	○
		김민상 (231124)	○
	나도현 (2331124)	○	
진도	도서명: 마음	토론 주제를 정하고 팀을 나눠서 찬반 토론하기	
2주차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이세현, 김민상, 나도현, 최정현]</p> <p>토론내용</p> <p>토론 내용</p> <p>토론 사회자 최정현의 주제 선정과 의견제시</p> <p>1~3번 모두 최정현 발언</p> <p>1. 선생님의 자살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p> <p>“내가 그 감옥 안에 도저히 있을수 없게되었을 때, 또 그 감옥을 도저히 부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내가 가장 손쉬운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했네. 움직이지 않고 있으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한다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지.”</p> <p>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 선생. 그는 죽음을 마치 면죄부처럼 여기고 죽음 통해 자신의 죄를 해소했다. 죽음 이전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갔다. 염세주의적인 발언 들 역시 서슴치 않고 한다. 선생님의 자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견고히 다지지 않는 에고이스트의 표본이다.</p> <p>1-1.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선생님은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나’와</p>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며 타인을 경멸했던 나 자신의 마음 또한 결국 경멸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아내와 자신의 삶을 파괴 시키며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통해 ‘나’와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들기보다, 죄를 뉘우치고 아내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서사가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1-2. 죽음에 관한 다른 해석. (면죄부가 될 수 밖에 없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신념을 가진 자기 자신이 내리는 벌)

애초에 선생님의 ‘죄의식’은 하나의 K를 그리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친했던 K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점을 후회하다 못해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착각할 뿐이다. K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좌절을 느끼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주변사람들의 잘못이 과연 있을까? 정말 선생님의 잘못 때문에 K가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사무라이 정신으로 직접 선생님에게 말했을 것이다.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 인한 갈등을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K는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K의 자살 역시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해본다면 선생님 역시 죽음으로 죄를 갚을 만큼 잘못된 점이 애초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방식에 대해 이기적이었던 면이 후회스럽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진 선생에게 죽음은 후회를 하는 선생을 달래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이다. ‘후회’를 하는 주체 역시 선생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역시 선생일 뿐이다. 즉 선생의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함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말이다.

2. 지식인이라는 설정은 작품 속 인물들을 그리는 데 중요한가?

2-1. 중요하다.

서사가 진행될 때 선생님의 편지 부분이 핵심이 되어, 마치 소설이 아닌 에세이의 형식이 중점으로 느껴진다. 이를 해소하고자 작가는 ‘나’라는 인물을 통해 선생님을 미스터리한 인물로 묘사하여 흥미와 복선을 집어넣었다. 즉 K, 선생님, 나라는 인물들은 대학을 다니는 지식인이자 각자만의 세상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교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나, 굳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K, 죄의식에 수십년 빠지고 친구의 죽음에 대해 회복하지 못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선생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즉 인간의 고독함 이면에 숨겨진 ‘나약함’, 즉 ‘문약함’은 지식인 캐릭터를 통해서만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또 학구적이고 고뇌에 빠지는 성향이 극 중 인물들의 선택과 마음에 설득력을 불어넣는다.

2-2. 중요하지 않다.

작가는 그저 친숙한 캐릭터인 지식인을 통해 자신의 삶 속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식인의 길을 걸어왔고 다른 작품에도 지식인을 등장시키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그저 자신의 말을 전하는 친숙한 캐릭터로 쓰인 것이다. 아사히 신문사의 연재된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어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 중 사랑이란 보편적 감정, 자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죄의식 등을 다루었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지식인이라는 캐릭터는 작품 중심 서사를 이끄는 성질보다는 첫시작의 흥미유발을 위한 신비스러움의 성질을 나타내기만 했을 뿐이다.

3. 선생님은 '나'를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또 '나'의 존재는 선생님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는가?

3-1. 그렇다.

선생님은 결혼 후에도 행복할 수 없다.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는 <달린 마음>으로 살아간다. 다만 나에게 만큼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다. “훗날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거절하는 것. 지금보다 더 외로운 미래의 나를 건디는 대신 지금의 외로움을 건디는 것.” 이런 후세대를 위한 조언과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말했다. 자신을 동경하는 '나'에게는 '자신의 죄를 평가받는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이다.

3-2.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드디어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노기 대장이 죽은 이유를 잘 알 수 없었듯이 아내도 내가 자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시대의 추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개인의 타고난 성격 차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못 건디는 사람, 그럼에도 자기 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두 팔 벌려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자신의 자살에 대해 이해하는 인물이 있다고 느꼈다면 선생은 개인주의적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 그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뒤, 가족을 생각하고”라는 식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 당시 상황처럼 애초에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이해해주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후세대인 '나'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다.

사회자의 주제 선정에 따른 팀원들의 토론

1번 주제. 선생님의 자살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세현님: 선생님의 입장에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지 않았나, 벌을 받아서 자살을 한다가 아니라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벌을 받은 느낌은 아니지 않나?

민상님: 선생님은 속죄를 오히려 거부했다. 우선 작품 외적으로 자살을 포함한 어떠한 죽음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3장 선생님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은 자기 죽음을 결코 속죄(면죄)로 여기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

선생님은 k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왔으며(3장 54, 269p), k의 죽음 이후 죄의식에 빠진 자기 삶을 감옥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건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감옥을 부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했다고 편지를 통해 털어놓았다. (3장 55, 270p)

표면적으로 선생님이 자기 삶을 '감옥'에 비유한 것은 작은아버지로 시작된 인간 불신이 k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생님이 굳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죄(k의 자살에 대한 원인 제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k의 죽음에 대한 대가는 선생님이 살아서 계속 고통받는 것이고 자살은 결코 속죄(혹은 면죄)의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자살은 선생님이 말했듯 감옥을 부수고 탈출하는 것이며, 더 이상의 속죄를 거부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자신이 자살하게 된 계기를 메이지 천황의 죽음, 정확히는 그에 따른 노기 대장의 죽음으로 서술했다. 노기 대장의 할복을 보며, 몇십 년 동안, 내면의 고통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 죽는 한순간이 덜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한 것이다. 노기 대장의 할복에 보고 선생님은 그 죽음이 과거 실수에 대한 속죄가 아닌 노기 자신이 편해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선생님의 죽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3장 56, 274p)

도현님: 이걸 과실치사 정도 아닌가, K의 죽음 덕분에 선생님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죽음처럼 애초에 K의 죽음도 옳지 않은 것이다. 자살을 하면 주변 인들은 괴로우니까 K의 죽음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선생님도 주변에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알리면 속죄가 아니다.

세현님: 속죄의 마음으로 죽음을 통해 자유를 맞이하겠다는 것은 속죄가 아니다.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더이상 벌 받기 싫다. 속죄의 의미는 아니지 않나

도현님: 죽음도 속죄고 살아있어서 감옥으로의 탈출로 본 것은 자기 자신의 힘든 삶으로,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았나 자기자신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상님:속죄의 의미로 살아서 계속 벌을 받는다, 짓값을 치른다. 속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살은 자기자신만을 위한 행동이다.

세현님: 잘못을 갚아야하는 사람도 K인데, 나는 더이상 지울수 없는 과오다. 계속 고통받아야하는 것, 자기가 자신을 위해 내린 벌, 면죄부란 것 자체가 애초에 없는 개념이지 않을까,

민상님: 속죄할 방법이 없지 않았나, 무덤에 계속 가는 건 무슨이유인가?

세현님: 가는 행위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도현님: 속죄를 함으로써 미안함을 더는 거 아닐까, '돈다'라는 의미가 말이다.

세현님: 살면서 죄를 조금씩 내가 가서 K한테 용서를 받기보다 내 죄를 계속 느끼고 있다, 내 죄를 잊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죄를 확인하려는 의미가 아닐까?

민상님: 모순적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작은 아버지한테 피해자가 뿔던 사람이 K를 배반한 점, 모든 인간이 가진 거 아닌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말이다.

도현님: 선생님은 모순이 있죠. 다 그럴수 있지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 K가 잘못

했다. K가 모순적인 행동

2번 주제. 지식인이라는 설정은 작품 속 인물들을 그리는데 중요한가?

민상님: '마음'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지식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치열한 내적 갈등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묻는 것이라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작 중 고등 교육을 받아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은 넷 등장한다. 선생님, k,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형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식인이라는 속성이 작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작품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인보다는 도시인과 근대인의 속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근대 농촌 사회를 살아온 이들(주인공의 아버지가 대표적)과 대조되는 일종의 세대 구분인 셈이다.

도현님: 없으면 안되는 소재 같아요. 주인공이 배우고 싶어서 따라다니지 않았나. 지식인이 아니었으면 데리고 다니고 싶었을까. 첫번째 말같이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식인도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다. 생각이 엘리트이므로 확실히 다르다.

민상님: 같은 포인트를 잡았는데 다르게 생각한다. 인간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지식인이기 때문에 생겨났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 K랑 선생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도시인이라는 것과 근대인이라는 것. 일종의 세대구분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이 주목받게 현대인입장에서도 메이지유신에 태어나서 우연으로 그 시점을 포착했기 때문에,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식인이 아니었어도 이야기는 전개될 것이다. 죄책감으로 지식인이 아니어도 봉건사회 이야기면 전혀 회자가 안될거지만

지식인을 같은 의미로 속죄든 죄책감이든 일본문화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인의 속성이라고 생각. 일본의 엘리트층이 할법한 생각 1700년대였어도 자살을 선택한다 일본 엘리트층의 문화이지 않나  
명예롭게 죽음을 문화적인 현상이 아닐까 다른 문화권이면 자살을 고려하지도 않을까 그걸 자연스럽게 일본스러운 부분도 있고

세현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식인이어서 진중하게 모순적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게 이제 지식인의 특성을 활용한것이지 않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맨처음에 주인공이 선생님에게 빠진이유도 묘한 미스터리함에 흘러가지고 은근히 비밀이 많아보이고 더 빠져들게 된거면 지식인이 아니어도 혼자 다른데 살아도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지식인이라는게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 부분에서 지식이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아버지와 현대간의 분리, 지식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현명하고 사고자체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좀 더 생각이 우월했다가 아니라 인간의 모순이나 이런 본능을 위주로 소설이 진행되지 않았나

민상님: 인간의 본성이 중요하지 않았나 지식인이 아니었어도 결과는 똑같지 않았을까? 그냥 농사일아니었어도 이렇게 깊게 생각하네

세현님: 도와주는 느낌이지 지식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민상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와 같은 부류를 선택한 것

도현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한건, K이기 때문에 자살을 한게 아닐까. 사고가



깊은 사람이 죽음을 택한게 아닐까.

세현님: 선생님이 지식인이 아니어도 죽음을 선택했을 것

민상님: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소설에서 중요하게 활용된 것은 아니다.

세현님: 일반인하고 지식인하고 다르게 활용된 점이 있나?

도현님: 비슷한 세대인데 아버지는 우악스럽고 선생님은 다르다.

민상님: 인간 심리이기 때문이다.

도현님: 나와 선생님을 연결하는 것은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민상님: 1장 2절을 보면 고통을 느끼냐 마냐 분석하지 않더라도 지식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표현되는 건 있다.

세현님: 자기가 친구의 자살을 친구가 죽었다면 죄의식을 느끼는 건 그 당대 농촌 사람들이어도 비슷하게 느꼈을것이다.

도현님: 미스테리한 농부가 나왔다고 해서 주인공이 관심을 가질수있을까. 농부가 사고를 깊게 하는게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런 지식인을 택하는게 맞다.

결론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 흐름이 더 중요하다 굳이 소설가가 부자연스러운 선택을 해야할까 이런걸 나타낼수 있었을까?

민상님: 소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이 아니었으면 퀄리티가 낮아졌을것 이긴하다.

세현님: 흐름에 있어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 어느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거가 다를 뿐이다. 소설의 형식과 주제의식 중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말이다.

3번 주제. 선생님은 '나'를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또 '나'의 존재는 선생님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는가?

세현님: 이해할 수없다! 납득을 하는 것이다. K를 배반하고 아내를 얻고자 했고 이기적인 마음. 과오를 받아오면서 아내와 서먹한 이유는 그거다 이런 고통 때문에 자살한다 이런 과정들 모든게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은 선생님, 아내는 알수도 없고 핵심인물이니까 유일한 사람은 주인공인데 미리 말해준 정보는 많이 없잖아 한번에 이야기를 하는게 마지막 죽은 뒤니까 그랬으면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기보다는, 말할 사람이 주인공밖에 없었고 이야기를 한거다. 너가 이해해줄거 같아 해서 이야기한건 아닌거 같다. 선생님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거 같다.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했으면, 자신을 이해했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민상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가지고 과거를 말해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선생님의 존재는 나가 다가왔음으로서 조건이 완성되었다 노기대장이나 나를 만나서 자살을 하는 조건이 완성된다 몇십년동안그런 사람을 선생님이 기다리지 않았나

세현님: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런거에 대해 고통받았다는 동의할 수 없는게, 고통이 줄어든다, 제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했으면 자기합리화적인 요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주인공이 봤을때는 마음을 연다는 것도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을 높게 우러러보는 걸 선생님도 눈치를 챘을거다 어떤 애인지 힌트를 흘리잖아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네 그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걸 다루지 않았을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서 마음을 연것도 맞고 일부러 열려고 의도한것도 있는 거 같아요

민상님: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럴수 밖에 없었던 인간본성에 대해 이해라고 할까 인간본성의 메커니즘.

‘나’ 자체는 어떤 이해?: 파악이 더 맞을까?

도현님: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세현님: 배우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파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납득, 배우려고 함에 있어서 선생님의 죽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게 가까워질 수 있는게 듣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 비밀을 무조건 알아야한다 그 비밀을 앎과 동시에 죽었잖아요 그리고나서 선생님이 왜 죽었나에 대해 파악이나 납득을 했을거 같지 왜 이사람은 죽어야 했는가 죽었는가에 대해 납득

이런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사람이 죽었다고 납득을 하는거지 인간과 엮어서 파악을 했다가 보다 선생님의 인물에 성질을 두고 행동을 이해한것이지 인간의 본성을 두고

도현님: 자넨 진실한 사람이니까. 라는 문장을 보면  
외국인이랑 수영하네 선생님은 좀 다른 사람과 교류를 안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진실한 사람은 맞는 거 같다 이해를 바라고 쓴 글일 것이다.  
선생님이 몇 안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백퍼 믿지 않을까 나역시 K처럼 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마음의 문을 넘은 사람이다.

세현님: 소설에서는 만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과정을 하면 자신에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인데 조건을 따져봤을때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편해진다면 편지를 써서 끝마무리를 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열쇠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까지 적합한 주인공이 됐으면 주인공의 역할이 컸겠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키였다 생각하면 주인공의 존재는 입체적이지 않다 죽음의 열쇠로 쓰인 하나의 도구이다 주인공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민상님: 나쓰메 소세키는 주인공의 역할을 선생님의 도구로서 사용했다.

세현님: 그렇게 입체적이지 않다 소설의 흐름에서는 키 같은 느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죽었을때 홀로 자살했잖아

민상님: 수동적인 역할이지 않나

도현님: 원래는 보고 말하잖아 그래서 저는 꽤나 큰 인물

민상님: 소설의 선생님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다. 긴 편지를 나 자신을 위한 인물, 자살을 하기전에 말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한거다

#### 4. 동성애에 관한 논쟁

민상님: 시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많이 확대해석일수도 있다 오히려 동성애 감정에 대한 논문들이 많은데 그게 더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이 반응을 안해서 섭섭하다고 느끼거나 말이다.

세현님: 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친밀감의 단계, 내 말에 제대로 왜 반응해주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따졌을때 아직 그만큼 사랑의 감정은 아니다

#### 5. 더 나눈 토론 내용- 녹취록

자기가 자신한테 면죄부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이제 괜찮아라고 느끼는 그런 면죄부도 있는 거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면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냐하면,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잖아. 자살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면 죄를 용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벌을 받아서 내가 잘한다. 자살한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는 벌을 계속 받고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상황에 도망치기 위해서 확인하니까 라고 이제 근거를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면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가 보는 입장에서

자살이 이제 그런 케이의 주구가 남아있는 요소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을 불쾌하기 위한 방식이었지 뭔가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가지는 않았던

예 저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원 씨가 말한 거랑 문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재의식에 빠져서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자신의 상황을 감옥에 비유했던 죄의식에 빠진 자기 예산 재의식에 빠져가지고. 인간 불신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자기네교 적용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선생님은 강하게 감옥이라는 표현이죠. 굳이 감옥이란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자기가 케이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곧 대가를 치르는 거다 선생님께서 내면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옥이란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케이 죽음에 대한 대가는 선생님이 계속 살아서 고통받는 것이지. 자살이 아니었을 거다 오히려 자살은 선생님이 말했듯이 감옥을 부수고 탈출하는 것이며 오히려 폭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자신이 자살하게 된 계기를 노비되는 게 주공을 을 계기로 자살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기대장의 할복을 보면서 몇십 년 동안 내면의 고통을 견디면서 난 죽은 사람에만 택하며 사는 것보다 한순간 할복을 하는 게 더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 유기대전 이랑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에 여겼는데요. 죽는 이유랑

살아온 삶을 그걸 보면 선생님께서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신 실수에 대한 손재가 아니라 노비 자신이 빠러지기 위한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평가를 선생님의 죽음 그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죽음은 선생님 자신에게 있어서 결국 면죄 속으로 속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문제를 흐르고 가서 만들고 일단 죄가 있으니까. 만들어보고 일단 죄가 있으니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업무도 있어 가지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제가 바로 자살을 이렇게 제공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소설 작가를 중용했다는 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선생님의 의도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과실치세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순수 투표가 너무 정도라고 딱 한다고 해서 엄청하는 제가 아는 논후의 해주는 이름이 크네요.

이게 단순히 면제부라고 들어갔을 때는 면제부가 될 수 있지만 죽음이 놀나 그 구나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었나 봐요. 중학교 때는 저도 같은 한 사람이 거의 길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선생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여지고 그래도 죽음이 너무 빠르게 재미있어서 조금 더 조금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어디 나왔어 응 케이의 죽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의 죽음은 당연히 케이의 죽음이 시간이 계속 죽었다면 언제부터 될 수 있고 엄마 연대로는 하느님이 들은 거면 근데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게 자살한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죄를 유명해요. 실패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했다.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니까 어떻게 범죄자가 죽을 때 어떻게 말했느냐 아니면 그걸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말을 하면은 좀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주변에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대 미안하다

근데 약간 민상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의 논리로 써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죄라는 거가 임상님은 선생님이 죄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전체 자체가 만약에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후회나

그 자기 자신만의 신념이나 엄격한 윤리 의식에 의해서 자신이 지옥에 갇혔다면 그걸 탈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자신이고 거기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이 선택한 죽음이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뭔가 면죄부를 써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한테 벌을 부여한 걸로 그건 어떻게

자살을 숙제의 의미로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분은 약간 좀 동의하겠다고 저는 일단 살아있는 걸 과목이라고 비유를 했고 살아서 가치를 계속 받는 거를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 벌을 받는다는지 갯값을 치른다 숫대량은 좀 다르겠네요. 갯값을 치른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소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소설 전반적으로 케이에

대한 죄책감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뭔가 속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었던 말이 드러나는 행동이 전혀 없었죠.

특히 자살은 정말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서 묘사되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속재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자신의 저희 선생님의 잘못을 따지면 선생님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케이 가 가장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 잘못을 이제 갚아야 하는 사람도 케이인데 케이는 이미 죽어버려 사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못을 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같애 나는 더 이상 내 잘못을 갚을 수 없고 뭔가 이거 지을 수 없는 과오다 패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비속 기생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게 일단 기분 전제였던 거정은 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자신에게 내린 죄기 때문에 저런 자살로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답은

이게 죄를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배추의 커플 갚을 수 없는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게 선생님 뭔가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소설 안에서 그런 개념이 안 통하지 않았다. 논제 부르는 거나 애초에 그냥 없는 개념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의 무덤에 메달 선묘를 가는 거는 속재의 의미랄까 아니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갚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 거 같애 죽은 퇴위를 만날 수는 없지만, 하이의 무덤까지 가는 것 같은

좀 속재의 일부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 가책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한 행동을 했을까? 그거를 좀 획득해 볼 여지가 있는데,

뭔가 내 마음이 조금씩 허가분해지고, 있다. 라는 거 그냥 나는 살면서 개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걸 보거나 그냥 가는 행위 자체가 뭔가 내가 가서 가끔씩 케이한 이용서를 받는다.

케이 위에서 갔던 것도 다 더 있는 거 같거든. 내가 내 죄를 잊지 않고 계속 케이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내 죄를 잊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선생님 뭔가 성격 자체가 뭔가 내가 지은 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잊어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자기가 나쁜 사람이고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무덤에 처진 나왔던 걸 수도 있고

맞어 지난번에 감상문의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살짝 예시가 선생님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더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약간 모순에 대해서 표현을 했던 게 약간 모순의 기분이었어요. 인간 자체에 인간 자체가 가진 모순에 대해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신가 제가 예시를 들고자 좀 예시를 들어서 성형으로 했던 거는 그냥 원래 전화 그냥 인간 자체가 애초에 모순이 너무 많더라고요.



난 욕하면서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난 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기준이 각박한데 자신한테는 반대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모순 자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든 거지 이게 선생님하고 그런 모순이 있다. 이 상관관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이까 좀 넓은 범위로 해요.

넓은 범위로 해서 그냥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모순적이다라는 성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한테는 관대한 아니 자기한테 관대한데 남한테는 엄격한 그런 현 중에 약간 정말 정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근데 약간 선생님의 관대함에 대해서는 소설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관대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잘못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뭔가 지금 인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시간 더 반대하고 그런 건 있는 거 같은데, 이 소설 안에서 선생님은 공기 약간 케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상실감을 가질 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가지고자 무작정 그냥 여자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혼인놈을 이렇게 맺고서 하였고 저 그랬을 때 케이가 상실감을 느낀 걸 알면서 케이가 죽으니까. 막상 그거를 평생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모순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애초에 그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는 게 사실 인간이고 선생님이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관대함의 정도를 대입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죄책감을 아예 느끼지 않는 인물이었다면 어떨 거 같아요. 일관되게 아예 청춘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헤이의 자살을 그냥 되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자살을 했구나 내 친구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은

민상 님은 모순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선생님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약간 세현 씨가 말한 거라면 살짝 히프 같은 거제가 선생님이 모순 조절을 시작했던 이유 아주 더 넓게 잡아서 내 쪽 선생님이 아니어도 지식인이 아니어도 모성을 좀 낮다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의 모순적인 이유도

그것이 작은아버지한테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 갑자기 또 케이일 케이와 여자를 보고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또 반대일 바뀌었잖아요.

이 작은 아버지의 사건을 겪고 인간 불신에 걸렸던 자식 사람이 또 자기가 그럴 위치에 되니까.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해 가지고 다룰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체를 전 모순적이라 생각했고 이것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닐까 그리고 박주민 조재끼가 그거를 모순을 포착해 가지고 태도를 붙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피해자고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가해자가 된 상황 그런 그림 보연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의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생님이 좀 일관된 편에 속하는 거 같고, 왜냐하면, 민상님 얘기처럼 자기가 어떻게든 실수 안 할려고 하고 배반 안 할려고 행동을 했는데 한 번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몇 수십 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케이 가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점점 당당하게 싸우지 못한 거를 그래서 계속 후회를 했을 거고. 케이의 자살로만 자신의 어떤 죄를 생각했다기에는 너무 길었고 그리고 케이의 자살에 대해서도 오히려 케이 가 좀 보수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에고이스트 같은 에고이즘에 빠진 어떤 이기적인 행위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무라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버림을 받고 이제 그렇게 결혼도 못 하나니까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다는 게 좀 더 정정당한 선택을 하고 갈등을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고 마냥 선생님만의 죄로만 또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 가 잘못했다.

각종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식인이랄 수 있는 인물이 네 명 전쟁하지 않습니까? 케이라는 선생님 주인 근데 이들의 지식인이란 속성이 이 작품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도시인이라는 것 그리고 근대인의 속성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거라 생각 전문대 농촌 사이를 살아온 예를 들어서, 주인공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들과 대조되는 일종의 세대 구분이라고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낙치였었을 때 마음이 사실 주목받는 게 현대인의 좀 현대인 입장에서 봐도 공감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 나치의 소속기가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죠. 단지 나치의 소속기가 메이지 유신 시기에 태어나 가지고 딱 일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무렵의 소설을 썼기 때문에 우연히도 시점을 포착했기 때문에 눈에 지게 대단한 소설이 됐고.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거지 수고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꼭 지식인이 아니었어도 이야기는 전개가 됐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원님 말처럼 주인공의 선생님을 따를 이유도 없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겠지만,

자살을 적용하게 되고 부추기게 돼 가지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은 꼭 지식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과 공손 사회의 인물이 주인공이었다면 벌써 다르게 전개가 됐어 가지고 아직 제가 이제 회자되는 소설이 아니었겠지만,

이 아니었어도 이야기가 전개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하는 인물이 케이랑 네 이 1000왕 천왕 말고 노기 대장이랑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살 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뭐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지식인이 아니면 거기까지 어떤 이상 세계를 꿈꾸고 엄격한 윤리식을 가지고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당시의 지식인이 할 법한 생각들을 현대인이 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현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다가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자체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온 것밖에 이야기를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가의 이야기도 다르고 다른 지식인들의 이야기 자기를 다루는 걸 너무 좋아하고 좀 더 농촌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나 지식인이 아니었을 때 생기는 갈등 표현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중심 서사가 선생님의 망상이라든지. 의심 이런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죠. 내적 갈등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데 첫째든 아니면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된 게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일본 엘리트층 일본 문화정의 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속성이라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엘리트층이 짝만한 선택이 만약 이게 100년 전 이야기였어가지고 그게 1800년대인가 900년대인가

한 1700년대를 배경이었어도 아마 자살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식인의 속성 때문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멀미할 것 같고,

1700년대였어도 자살을 택한다.

일부 문화적인 특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살 거 아니야. 저는 일어나니까 일본이 그렇다

근데 사실 멀리서 보면 자살을 선택한 동기가 대단히 뭔가 일본 원래 문화면 영 예롭게 죽음을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명예가 아니라 자기가 괴로워서 선택하는 거니까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그런 부분 그건 어떻게

명예라기보다는 자살을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손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예 빠른 저당권이었다면 친구의 수단으로 자살을 고려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군가가 처남을 따라 자살했다는 몇 개가 나오니 손쉽게 받아들이고 나도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일본이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읽으면서 충격받지는 않을 거고. 뭔가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이렇게 감정을 느낄 것 같아서 일본스러운 부분도 있고 새연님 결혼 안 했다.

내면의 사고에 있어서 더 진중하게 아니면 좀 더 약간 모순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게 그게 이제 지식인의 특성을 활용한 건 어느 정도

맞지만, 과연 지식인이 아니면 이야기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주인공이 선생님한테 빠지게 된 계기도 그니까 맨 처음에

뭐 서양인하고 같이 있던 걸 봐서 우리가 이끌려가지고 대화를 나누려고 그런 묘한 미스터리함 같은 거에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대화도 해보니까, 뭔가 은근히 비밀이 많아 보이고 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 같고, 그걸로 보니까, 더 이게 빠져들게 된 거면 사실 굳이 지식인이 아니어도 정말 예를 들면, 그냥 뭔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뭐 덕담 같이 모여 사는데 뭐 혼자 약간 다른 데 살아서 뭔가 사람만의 비밀스러움이 있다. 할수록 그냥 주인공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렸더라는 스토리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지식인이라는 게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지식인이 아니면 지금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이미 군인이라는 캐릭터는 더 이상 뭔가 이 소설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거나라고 생각하고 아까 민석 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총 네 명 등장하는

좀 더 현명하고 사고 자체가 일반인들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뭔가 지식인은 좀 더 생각이 우월했다. 아니면 뭔가 좀 더 복잡하지만 더 납득이 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저희가 인간의 모순이나 이런 걸 얘기했듯이 지극히 인간의 개인적인 본능 감정에 의해서 소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그런 점으로 보면 더욱더 지식의 특성과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지식인이기 때문에 사고 과정을 좀 더 뭐랄까 깔끔하게 전개가 되고 좀 더 논리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소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지식인이 아니어도 약간 거친 사고를 거쳐서 결과는 똑같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독자들이 읽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그냥 농사일 짓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이 사람 농사일 짓고 뭔가 시골 사람이면 이렇게 깊게 생각하네가 됐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지식인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지식인이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거에서 인간의 모순점에 대해서 되게 잘 서술했구나라는 걸 도와주는 거지 음식의 특성을

입장에서도 의도적으로 뭔가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상어를 하거나 왜냐하면, 나치마 솔직히 자체가 제국대학 나오고 연극 유학 갔다 오고 연계시켰으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게 자기가 같은 부류를 주인공으로 삼은 거고. 딱히 이런 지식인의 속성을 활용했던 의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면 약간 도연님이 생각했을 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지식인이 아니어도 생겼을 것 같아요.

지식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뭔가 지식인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에 이어져서 자살을 우모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어쨌든 둘 다 지식인의 고문학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특성 그냥 빼고

모두 그냥 죽음 거는 약간 상관형은 달라도 저도 결국은 결과는 자살이랑 똑같았을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이 죽었다면 뭐 죽은 거나 약간 지식인의 특성보다는 선생님의 기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민석님이 나스마의 소재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같은 부류를 선택해 이렇게 해서 글을 썼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지식인의 일상이 다 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인의 뭐라 모습을 다 담았다고 해도 그것이 활용됐다. 소설에서 활용 중요하게 활용됐다. 않았다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인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달랐어야지 잘 활용 중요하게 활용된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잘 나타낸 건 맞지만, 소설에 그냥 본인이 당대 최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자기 일기 썼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고

일기를 썼다기보다는 당대 지식의 모습에 다 담았지만 그거의 소설에서 중요하게 활용된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일반인의 차이가 안 나오잖아요. 지식인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 일반인은 지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잖아요. 있었으면 만약에 세대차이로 그렇게 꼭 이것도 효과가 표현되는 거지 지식인으로서의 행동이 이러했다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게 활용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버지와 선생님의 뉘앙스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좀 비슷한 상황인데 아버지는 되게 아버지는 되게 정설이다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되게 정설이라고 되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부분에서 되게 그냥 뭐 지식인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애 이게 굳이 지식인이 아니라 아까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적인 면보일 수도 있으니까. 정적인 농부 같은데, 근데 우리 설득당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식이 기억나지 않았어.

뭐라고 적어야지 대비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소설의 메인은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세대 간을 분리하는 역할로는 주변에 하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이 소설의 메인 한 분이어서 두 명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성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나와 선생님을 인터넷으로 와 딸자와 선생님께 좋아서 그러면 취미에서는 주방식이 없어서 대학교 동물에서 주먹으로 기식인이 아니었다면 전혀 다른 도서를 냈습니다. 지식에 아니었다어도 이렇게 엮을 수는 있었어요. 결과는 빛깔고, 같은데,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1장 이 장은 완전 다른 얘기다

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콘텐츠는 번뇌에 빠진 인간이잖아요. 근데 번뇌라는 걸 당대 지식인만 느꼈을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소재였을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작가님 자체가 불교에 있는 선수행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말이여 그래서 뭐 윤리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자체 색깔이라는 것이 번뇌가 되기까지의 감 그 그 과정으로 갈려면 지식



인으로서의 활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정도의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통의 원인이 뭐고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고통을 느끼냐 가장 좀 그런 문제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분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결과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소설이 보는 입장에서 지식인이 주인공일 때 그 내면을 세세히 묘사한 걸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거지 지식인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는 똑같은 거랑 똑같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세밀한 내면 묘사가 있을 수 없었겠지

그러면 약간 소설의 디테일한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느낀다면 이제 좀 더 지식인이라는 면에 더 활용 정도를 이제 높게 쥐야 될 것 같고, 민상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정서 고통 이런 거를 생각하고 느낀다면은 이제 지식인이 아니어도 된다. 약간 요런

그런데 처음 우리 모였을 때부터 말했지만, 자기가 친구의 자살을 중용 거의 중용에 가깝게 총동질 했을 때 친구가 정말 죽었다면 그러면 거치 죄의식을 느끼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죄의식 느끼는 거는 지식인이지 아니냐 할 건 없이 뭐 방대 거의 농촌 사람들이어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안 했는데 확인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님 맞서 말씀하셨고

만약 지식인이 아니었다면 주인공들이 이 소설의 퀄리티가 훨씬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식인이란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의 메인 구조라 해야 하나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모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서는 지식인이나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다고 이걸 좀 약간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네요. 어떤 것이 소설에서 중요하다든지 뭔가 일종에 딱히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설이 흐름에 있어서는 지식인이 중요했던 맞지만, 이게 뭔가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타냈던 건 지식인은 딱히 이렇게 허용되지 않아요.

맞다. 이래서 지식인이 또 어느 방면에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날 물어봤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어쨌든 질문을 통해서 각자가 마음을 보고 중요하게 뭘 생각했는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새연님이랑 민상님은 좀 더 마음이 가진 인간 본성을 다루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주제 의식을 생각하시고 저랑 도연님은 사실 이런 콘텐츠는 뭐 셰익스피어도 계속 다뤄서 있었고, 모든 이제 책들이 다루지만 지식인이기 때문에 특성이 살고 세세한 심리 묘사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설 기법 그런 것들 가능하니까 각자가 이제 다르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긴 한데 좀 선택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걱정이예요. 모 보내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다. 뭘 이해하는 거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고 함은 자신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한다.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내가 케이를 배반하고 아내를 이렇게 연고자 할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다가 자신이 지금까지 과오를 받아오면서 아내하고서는 약간 참혹한 인구가 될 그거다라는 상황에다가 또 마지막에는 내가 이런 고통 때문에 자살한 바 이거 이 모든 이런 과정들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선생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주인공 선생님 그리고 아내 이렇게 해주면 큰 주변 인물인데 사실 아내하고는 배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내도 알 수 없고 아내는 거의 당사자 중에 이런 인물의 가장 핵심 인물인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말할 유일한 사람은 주인공이니까. 맞는데 또 주인공한테 애초에 말해준 정보가 미리 말해준 정보는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너무 베일에 감춰져 있었고, 그거를 한 번에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죽은 뒤에 이야기인데 그랬으면 만약 일해줄 위한 사람이어서 편지를 썼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맨 처음 모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사실 두 사람 밖 주인공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한 거지. 너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애 내 이야기를 들어도 이견 아니었던 것 같애 그냥 죽기 전에 답답하니까 뭔가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내 비밀을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야기 이해로 되겠다의 이유가 애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건 아닌 것 같애 그래서 이해를 유해란 사람으로 좀 하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도 헛통지기 말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기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건네하고 그런 갈등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만약에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고통을 좀 덜지 않았을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줄 거라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물어볼 통일인데요. 이에

그 문제를 무슨 응급했을까요? 이것이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면 과거의 선택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좀 키포인트로 생각했던 게 작가님이 번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작가님이 이 소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기에는 이 주인공들이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까지 갈려면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번뇌에 빠졌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나 수행 같은 거를 좀 해야겠다라는 거를 느끼는 선생님의 어떤 행동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관통하는 어떤 그 작가가 원하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훈이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 살아 생전에 털어놨으면 죽음을 굳이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다 보면은 결국에는 선생님은 나라는 사람의 뭔가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으로 받아들였을지 아니면은 이해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 사람과 똑같이 이제 생각을 했을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쵸그쵸. 그래서 뭐 자살을 했네 딱 이디야를 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해에 가깝지 않을까?

아까 말한 거 세 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과 과거의 선택과 자살의 이어서 근데 저는 약간 서연 씨랑 의견이 비슷한데 이유가 비슷한데 더 다른 걸 골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과거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에 좀 집중을 해 가지고 1번을 골라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존재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선생님에게 약간 나가 다가왔음으로써 선생님이 자살을 더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이 완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존재는 생기는 게 큰 영향을 가지고 약간 아까 앞서 말했듯이 노기대장이랑 그리고 나를 만난 거 이 두 개가 저는 선생님이 자살하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과거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혼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만난 거쵸. 선생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자신의 과거가 아내한테 전해지는 거쵸. 근데 아내한테 말을 안 하면서도 또 자신의 과거 그거를 혼자서 품고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생님을 기다렸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의 존재가 선생님에게 글을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붙어서 아니라고 보는 거지 저도 이해를 빼면은 어느 정도 맞는 의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주인공 성격이 약간 그런 거를 주위에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고분고분 다 쓰고 뭔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단이기도 했고 근데 이거를 뭔가 선생님이 이런 지난 행동들 납득한다. 이해 대신 납득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더 전화 관직에 더 초점을 두는 납득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체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사람인데 그 누가 와도 이걸 납득할 만한 인물이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연님이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했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게 했기 때문에 죄의식도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라는 인물을 연결시켜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방면에서 선생님의 행동을 보면은 처음에 되게 닫혀있잖아. 마음이 근데 나중에 마음을 연단 말이야. 그 특히 유사를 통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어

떻게

그냥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만약에 자신 행동에서 이해를 해서 뭔가 그런 거에 더 고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저는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곧 고통이 줄어든다거나 왜냐하면, 사실 이런 과정들이 이해 제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선생님의 자신의 기준 자신의 행동을 이해했으면 예는 분명히 자기 합리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제삼자의 관점으로 가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 이 행동을 이렇게 이해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합리를 하면 할수록 제삼자 주인공이 봤을 때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을 연다는 것 자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니까 아내와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뭔가 자신을 되게 높게 우려보는 게 사실 선생님도 그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전해 줬을 거라고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앤지 조금씩 그런 신체 같은 거를 흐리잖아.

이런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면서 뭔가 애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저건 나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조건을 조금씩 따져가면서 이 주인공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과정 중에 당연히 인간과 이런 인간이 만나는 것도 친밀함도

그래서 마음을 연 것도 많고 애초에 마음을 살짝 일부러 열으려고 의도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회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한 가지 앵무유 생각 나네요.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서로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뜻에서 이해일까요? 아니면 어떤 현상 과거의 일을 보고 인간 본성의 모든적 그거를 파악하는 것을 그걸로 이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들 어떤 의미로 들어서 이거 말하고 있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현상을 보고 인간 모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근데 회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해 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해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러실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또 반으로 갈리면

그러니까 까 이의 대한 이제 뭔가 갖 평가를 하고 뭔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과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예전에는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도 똑같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건넌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민상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 계속 고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고난을 겪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약간 이해해준다가 파악하더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파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 달라

그니까 나도 똑같이 이해라는 의미를 선생님 자체를 파악하는 걸 이해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한 어떤 합리화 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이해를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의 삶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싶다. 했잖아요. 선생님을 품는 위치가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하면 파악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거 2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니까 민상님이 보기에 는 나라는 인물은 너무 선생님을 그 우러라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고 배워가야겠다.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해를 하는데 그 세연님은 그렇지 않은 쪽이잖아요. 그러면 도연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라는 캐릭터는 선생님을 어떻게 보는지 평가를 할 거 같어요. 이해를 할 거 같어요. 유서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연님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가 좀 선생님에 대해 이제 문서를 읽고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평가에 더 가까운 생각을 할 거 같다 그랬으니까.

저는 납득이라고 생각해요. 평가보다는 물론 이제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맞지만, 뭔가 배우려고 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까지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싶은 암사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단계가 비밀을 알고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피자 나왔어 그니까 내가 풍선만 짬뽕 가까워져서 정말 이제 선생님 인생사에 가서 듣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전에 비밀을 무조건 알아야 한나라는 전자가 깔려 있었는데, 비밀을 암과 동시에 죽었잖아요. 거기서 약간 의미를 다 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왜 죽었나에 대한 그런 파악을 아니 파악이란 말은 납득을 했을 것 같지 약간 선생님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라기 보다는 왜 이 사람은 죽어야 했는가 왜 이 사람은 죽었는가에 대한 그런 파악이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납득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일단 여기서 이제 미해란 게 납득으로 좀 더 세부가 되는 거죠. 뭔가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라고 납득을 뭔가 여기서 인간과 더 엮어 가지고 뭔가 인간과 이렇게 더 엮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거에 엮어서 파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자체의 성질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인물의 성질을 두고 행동을 이해하고 납득했을 것 같지 선생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본성을 두고 뭔가 파악하고 분석했을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이런 말

심정적으로 나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에게 동조를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저랑 이거는

나는 사실 동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사랑을 안 해본 캐릭터니까 나는 그래서 이성 간의 교류가 안 된 사람이니까. 마음을 이제 동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보연2만

뭔가 선생님이 나 자신을 이해해 줄 약간 유일한 사람이 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어도 선생님 유서를 보냈을 것 이다에 생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도현님 입장에서 반박해보면 그냥 일본 사람들의 어떤 톤앤 매너를 갖추기 위한 자신의 긴 글을 읽어달라는 식의 어떤 이게 뭔가 그런 걸 수도 있잖 아. 호의 약간의 뭐 글을 시작하는

나를 나에게 진짜 존중감하고 나도 노키바에게 사실 털어놔야 한다면, 털어놔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주인공이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자살을 하고 마지막 끝 맺는 끝마무리 뜻 맺은 느낌이면 주인공이 선생님의 자살의 마지막 열쇠가 아니었나 보다

그는 만약에 의해서 물어볼까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근데 그중에 자신에게 적합자를 이렇게 참고 있다가 그게 이제 주인공이 됐으면 주인공 세상의 역할이 좀 더 섞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쪽 지나서 케이하고 이렇게 뭐 보통의 시간을 쪽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주인공이 선생님이 약간 찼던 그런 키였다고 생각하면 주인공의 근데는 사실 그렇게 입체적이지는 않다 선생님의 마지막 죽음에 열쇠의 그냥 하나 도구일 뿐이지 애초에 약간 이야기의 중심과 선생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흘러가 기도 하고, 주인공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선생님의 도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입체적으로 단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그냥 소설의 흐름상에 봤을 때는 그런 키가 된다는가 그런 점에서 영향은 높지만, 뭔가 선생님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주인공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약에 가져왔다면 자사가 살짝 아마트리우스도 있거든. 왜냐하면, 뭔가 다른 습관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죽었을 때 그냥 정말 홀로 다스렸잖아요. 결국 주인공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선생님의 오후심 혼자 선택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선생님에게 준 영향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에게 중요한 입장이긴 했는데 수동적인 역할이었어요. 오는 키웠는데 뭐 역할 용량을 줬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원래는 직접 구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야라는 질문이 유서에 담겨져 있고 우리 있는 독자한테도 좀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좀 더 자신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나스메 서세키가 굳이 쓰지도 않아도 될 수단으로써 뭔가 썼다고보다는 이 책의 또 중심적인 느낌으로 후세대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느낌이라서 그거는 또 민상님은 어떻게



뭐 저랑 의견이 완전 정반대예요. 저는 이 소설에서 선생님은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지 긴 편지를 나한테 전달한 이유도 나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고 나는

이 자살을 하기 자살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가 될 뿐이라는 데 흔히 이걸 그런 존재인 거죠.

일단 마지막 3장으로 선생님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픈 것도 다 까먹고 있고 직업을 구해줄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잖아요. 오로지 자기 죽음에 죽기 전에 과거를 서로를 내기면 자기 아내한테

다만 입이 무겁고 아내한테 말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찾게 되죠. 최후에 인제 그

긴 한데 오히려 시대력을 생각해보면 약간 좀 일본이 근대가 되는 부분들 시작점이었잖아요. 이 배경이 오히려 그때 약간 좀 남색 이런 문화가 남아있어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근데 뭔가 그런 거 같아요. 동성애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에는 실제로 동성애가 성행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약간 이러한 관계처럼 선생님을 모시잖아요. 제가 한 10대 중반에 20대 중반의 남성을 만나서 직접 성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과외 선생님처럼 사회의 지식을 알려준단 말이야. 청년 청소년한테 그래서 약간 선생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성이 약간 뭔가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베풀어야 되는 관계다 보니까, 약간 찌든해지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게 동성애적인 요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선생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기준을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좀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다가 중년 남자랑 약간 좀 완전 23살 이쯤밖에 안 된 남자 그래서 시스와 나 사이의 문과보다는 약간 좀 한방성으로 근데 논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시스와 나 사이에도 그런 논문 진짜 있긴 하더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의문에 살짝 좀 저도 약간 동조를 해주자면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너가 아직 이성을 못 대봐서 모르겠 모르나 분데 동성한테 먼저 마음을 이제 열게 되고 너가 나한테 다가오는 하는 그런 것들이 외로워서 그런 거야. 약간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정서적인 어떤 애정을 나누는 그니까 뭐 굳이 뭐 육체적인 사랑 말고 정서적인 애정의 그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또 사랑은 맞긴 하죠. 그치 않아 이걸 사랑 아니야. 이거

그니까 배우고사나 배우고자 하잖아. 애초에 목적 자체가 뭔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감정적인 이득이 아니라 배움이잖아요. 삶에 대한 배움이 기반이 돼서 그거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거고. 더 뭔가 배우려고 더 다져가는 거지 뭔가 선생님의 뭔가 정신적인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약간 선생님의 감정을 더 궁금해하지 않았잖아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는 거고. 거기서 부터도 사실 뭐 삶에 대한 고찰이나 배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교감인 거지 감

정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메인 내용은 다 공감하긴 하는데 완전히 감정적으로 뭔가 기대하는 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사실 아까 동성애 얘기는 소수 학설로 얘기하는 거지 다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처음 1장에 보면, 약간 선생님의 반응 하나하나에 뭐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그래서 아예 감정적으로 기대하는 게 없었다 이렇게 조립기 원한다. 물론 저도 동성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꼬두각절이어서

부모가 내 감정이다. 아직도 선생님이 싫어했네 섞어라 그런 느낌보단 그냥 선생님이 반응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속상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당연히 선생님도 내가 좋아하겠지 솔직히 안 좋아했을 거고.


감정으로부터 기대라기보다는 친밀감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 파트가 아니라 뭔가 내 말에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뭔가 나한테 그런 관심이 없나라기보다는 그만큼 아직 우리가 친맥 그거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따졌을 때 나오는 그런 고민이라고 극장 아는 것도 약간 선생님이 그만큼 나를 신경쓰지 않는가라기보다는 아직 우리가 그만큼 친하지 않은 나를 신경쓰지 않는가 약간 이런

너무 약간 이상한데 근데 약간 이거를 들의 문제보다는 현대에 끌어오면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쫓아다니고 이제 이런 학구적인 대화를 나눴던 말이에요. 저한테 연구 내용 설명해 주시고 문학책 추천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거를 새벽에 카톡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 제 연인이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민상님의 지나친 유대감이

한 내용까지 따졌을 때는 내용이 학구적인 거라는 걸로 한 이루어져 있으면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그거 문제 삼았다면 그냥 사실 자체로 문제 삼는 거니까 그건 더 이상 더 정의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쵸. 뭐 선생님과 나도 뭐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전자 유대감을 깊게 나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사랑의 감정은 아니라

정말 배운 사제간의 관계인 거지 거기서 뭔가 사실 전 동생이 얘기가 왜 이렇게 깊게 해주면 나와도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아예 일말에 그런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일시	1월 11일 19:00 장소명 투썸플레이스 노원문화의거리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정현 (2111154)	○
		이세현 (2011048)	○
		김민상 (231124)	○
나도현 (2331124)	○		
진도	도서명: 마음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논문을 같이 검색하고 요약 및 토론하고 논문 자료 읽은 소감문 쓰기	
3주차	 <p>[좌측부터 이세현, 나도현, 김민상, 최정현 ]</p> <p>토론내용 및 같이 요약한 논문</p> <p>토론 내용</p> <p>1. 최정현의 논문 감상문- 여러 논문을 요약하여 팀원들에게 공유</p> <p><b>나쓰메 소세키 약력</b></p> <p>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이다. 일본의 국민작가라 불리며 10년동안 중· 장편소설15편과 5편의 단편소설을 쓴 그는 마흔이라는 나이에 작가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마쓰야마의 중학교, 구마모토의 제5고등학교의 교사를 거쳐 영국 유학 후에는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다른 작가에 비해 비교적 늦은 출발이었지만 작가로써 소명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던 소세 키가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하여 집필을 시작한 시기는 1907년으로 러·일 전쟁 후 일본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다.</p> <p>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는 1867년(慶応3)지금의 도쿄(東京)인에도(江戸)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일본이 근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일어나기 바로 한 해 전이었다. 격동이 휘몰아치는 시대에 태어난 그의 삶은 일본의 근대가 시작되는 메이지(明治)와 함께 시작되었다고</p>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시대의 격변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소세키가 산 50여 년의 생애는 서양의 근대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문명개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그는 갑자기 서양화되어 가는 일본 근대의 빛과 그림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1900년(明治33)당시 제5고등학교(第五高等學校, 지금의 구마모토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소세키는 문부성의 제1회 국비 유학생으로 영어 연구를 위해 런던 유학을 명받는다.

소세키는 2년간의 영국 유학 생활을 통해 불안과 신경쇠약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았지만 유학 체험이 그의 인생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당시 서양 문명의 정점을 이루고 있던 런던 한복판에서 그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문명의 정체를 느끼게 된다. 그의 문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날카로운 근대 문명 비평은 당시 서양 흉내 내기에 급급한 일본 근대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유학 시절에 소세키가 느낀 불안과 고독, 신경쇠약은 그 자신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으나 그의 문학 작품 창작의 토대가 되었고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다. 런던의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학교와 도서관을 오가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유학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독특한 연구 방식은 당시 세계 상품 판매장이었던 런던의 초라한 하숙집에서 획득된 것이다.

영국 유학에서 귀국한 1903년(明治36)4월, 소세키는 도쿄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외국인 교수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 라프카디오 헨)의 후임으로 연액 800엔을 받는 조건으로 영문과 교수(공식 명칭은 강사)가 된다.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된 그는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 편집인 다카하마 교시(高浜虚子)의 권유에 따라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를 집필한다.

소세키가 작품 창작을 하게 된 동기는 대학교수를 하고 있지만 왠지 불안하고 음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인데 이는 곧 작가 소세키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늦은 나이인 39세에 작품을 발표한 그는 그 후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전속 작가로 입사하여 위궤양으로 영면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일본 근대문학사에 획을 긋는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겨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있다.

소세키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상통하는 근대화의 모순, 에고이즘과 불신으로 몸부림치는 고독한 인간 군상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파헤친 작가였다. 일본 현대사회가 불안할수록 인간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근대화에 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시기에, 그의 존재와 문학이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세키 문학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당하는 이유는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통할 수 있는 근대화의 모순과 그늘, 죄의식, 고독감, 소외된 지식인들이 처한 제반의 문제, 지식인의 불안, 죽음과 자살, 삼각관계, 불륜에 대한 공포, 금전의 구애, 부친과 자식의 갈등, 급격한 근대화에 대한 지식인이 느끼는 두려움, 근대 문명과 인간의 불안, 에고이즘 추구로 몸부림치는 고독한 인간 모습 등을 작품을 통해 철저하게 파헤쳐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 소세키에게 속죄의 의미 (기독교적 관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현재 도쿄 신주쿠구 기쿠이초(東京都新宿区喜久井町)에서 명망 높은 관직을 맡고 있는 아버지 나쓰메 나오카쓰(夏目直克)와 어머니 지에(千枝)의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어머니 나

이 40세였으므로 ‘창피한 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출산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본명은 나쓰메 긴노스케(夏目金之助)<sup>1)</sup>이다. 나쓰메 집안은 구사와케나누시(草分名主)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에도시대 황무지를 최초로 개간하여 마을을 이룬 격식 높은 가문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성을 열고 촌락을 형성하던 초창기(草創期)의 명문가이다. 소세키의 집안은 1년에 한 번 도쿠가와 장군을 알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집안으로 만년에 쓴 수필 유리문 속(硝子戸の中)에 가족이 함께 에도성 안으로 극을 관람하러 간 이야기며, 커다란 현관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현관님(玄関さま)’라고 불렸다는 이야기와 주변 일대가 나쓰메 집안문양(紋樣)인 국화(菊)를 상징하여 동네 이름을 발음대로 기쿠이초(喜井町)라고 부를 정도의 기품 있는 명망가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가문의 몰락과 함께 ‘필요 없는 자식’ 취급을 받아서 두 살 때 시오하라 마사노스케(塩原昌之助) 집에 양자로 입적되었다. 아홉살 때 시오하라 부부의 불화로 인해서 시오하라 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쓰메 집안으로 보내졌다. 소세키는 오랫동안 자기 친부모를 조부모로 알고 지냈다. 14세 때 생모가 세상을 떠나자 소세키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한학(漢學) 교실인 니소학사(二松学舎)에 진학하여 양명학과 한문학을 공부했다. 16세에 영어를 접하고 대학 예비교에 입학하여 하숙생활 중 큰 형 작은 형이 사망, 셋째형의 방탕으로 나쓰메 본가로 원적 복귀되었다. 원적복귀 때 양아버지 시오하라는 양육비를 140엔 청구하여 받았다. 부친의 생전 유언은 나쓰메 소세키가 집안의 부동산 양도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생부의 사 후, 친척들에게 빼앗기고 유언은 이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세키의 작품에는 친척에게 강탈당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이 집요할 정도로 펼쳐지는 것이다. 1890년 동경제국대학영문학과 수업료 면제 특대생으로 입학 한 후,

1891년 셋째 형의 방탕으로 독수공방하는 형수를 돌보는 시동생으로서 형수를 극진히 돌보았다. 에토 준은 소세키와 그의 시대에서 소세키 문예에 나타나는 사랑의 비극과 사랑의 불능의 근본은 형수 도세와의 연모의 정이나 남녀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져 왔으나, 소세키의 추도의 단가를 읽어 보면 형수에 대한 인격적인 경모(敬慕)의 마음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주장한다(江藤淳 1970:35-37). 1895년 동경고등사범학교를 그만두고, 시코쿠 마쓰야마 중학 영어 교사부임으로인해서 많은 추측을 낳았으나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이 시기에 피해망상과 환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던 시기인 만큼, 사실 확인은 어렵다고 추정되고 있다. 다만 소세키는 누군가에 대해서 미안한 일을 저질렀다는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참선(參禪)을 했지만 깨닫는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소세키의 이런 죄스런 마음에 대해서 미야이 이치로는 그의 평전 상전 나쓰메 소세키에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여성에 대해서 위자료를 주기위한 경비마련을 위해서 월급이 많은 중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宮井一郎 1982:28-29). 귀족원 집안의 딸 교코와 으나 교코는 유산으로 인해서 히스테리증상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삶 속에서 소세키는 그의 문학 속에서 끊임없이 ‘속죄(atonement)’라는 의미를 투영시키고 있다(야마오리 테쓰오 2009:54-56)고 생각한다. 1900년 일본정부 국비장학생으로 영국유학을 2년간 경험하고, 런던대학의 셰익스피어 연구가인 크리그 박사와의 해후도 중요한 만남 중 하나이다. 크리그는 아일랜드 목사의 아들인데 그에게서 셰익스피어 연구 개인지도를 받았다. 유학 후구마모토에서 구마모토 성공회 선교사 노트 부인(Mrs. Nott)으로부터 성서를 선물로 받아서 늘 휴대하고 다녔다.(芳賀矢一 1910)

1912년 소세키는 딸 히나코(雛子)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일기를 분석해보면 자신의 삶의 생명의 근거와 의미와 시련을 극복하는 씩씩함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의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엿보인다. 성서가 가르치고 있



는 복음의 소리와 의인 욕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와 상통하는 소세키의 고뇌가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소세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과 토마스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를 읽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소세키가 기독교나 교회와의 직접적 접촉을 갖지 않은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 속에 암시되어있는 표현을 찾아서 소세키가 기독교의 수용과 단절을 거듭하여 갈등하는 암시적 표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키자와 가쓰미는 전쟁 중 궁핍한 시기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라는 책에서 기독교적 시점에서 나쓰메 소세키를 논하고 , 전후에 들어와서는 소세키의 마음 과 복음 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했다(滝沢克己 1956:43-46).8) 마음(こころ) 의 등장인물인 ‘선생’과 ‘나’와의 만남을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와 베드로와의 갈릴리호수에서의 해후, 세례, 십자가, 부활사건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12장(1회)과 13장(7회),15장(1회)에는 “죄악”이라는 단어사용이 집중적으로 9번 사용되고 있으며, ‘죄인’라는 단어가 31장에서 1번 나온다.이 작품은 ‘선생’이 ‘나’에게 죄악을 깨닫게 해 주는 대화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장면은 마치 예수가 제자를 향해서 대화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다음은 마음(こころ) 의 13장에서 ‘선생’이 ‘나’에게 ‘죄악’을 존재와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다.연애는 죄악이므로 ...중략... 나는 상상으로는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사실로서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죄악이라는 의미는 애매하여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 죄악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저한테 죄악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죄악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하시지요.” 마음 의 13장소세키는 작품 속에서 죄인, 죄의식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교나 선종은 자신의 내면의 성찰을 중시하는 종교라서 죄는 상대가 있어야 짓는 것으로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소세키가 표현하는 죄인 혹은 죄악이라는 용어사용은 기독교적인 묘사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해보는 바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얻은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미지의 삶을 선생님을 본받아서 참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서양의 사상과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소세키의 죄의식은 윤리적 범주를 넘어서 종교적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된다. 소세키가 엄격하게 지키고 자 하고 있는 도덕률은 기독교의 엄격한 도덕률의 주창자 칼빈주의자들이그런 것처럼 아주 흡사한 기독교윤리를 하나의 문학방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奥山実 1998:128-129). 일본문학이 대부분 그렇듯이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학적 특징에서 비교해 볼 때, 소세키의 문학 속에 나타난 엄격한 윤리도덕관은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사코 준이치로는 소세키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이 양명학의 ‘천(天)’과 상당히가까운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세키의 죄의식은 윤리적인 범주를 넘어서서종교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佐古純一郎 1960:14). 소세키의 마지막 유작 미완성 소설 명암(明暗) 의 오노베(お延)도 그녀의 남편인 쓰다 유유(津田由雄)를 사랑하지만 역시 그 사랑은 자기추구, 자아실현의 사랑인 것이다. 실제 소세키는 자아실현을 위한 사랑은 사랑의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소설을 통해서 소세키는 독자에게 사랑을 정의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할 수 있다. 소세키는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가페적 거룩한 사랑을 추구했으며, 오히려 에로스적 육체적 사랑은 아니었다. 당시의 일본인 독자들에게는 놀라운 사랑이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구는 소세키의 작가정신 속의 기독교적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작품 속에 드리운 깊은 죄의식, 에고이즘과 사랑의 결여 등 때문에 생기는 지옥에 대한 인식과 구원과 마음의 평안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정도로 평안에 대한 욕구,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확신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세키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단언(久山康 1956:1) 했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소세키는 그의 작품 속에 기독교적 요소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인(行人) (1913), 마음 (1914), 유리문 속(硝子戸の中) (1915), 한눈팔기(道草) (1916), 명암(明暗) (1917) 등이 아사히신문연재소설인데,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영국유학중에는 그토록 이해하기 힘들었던 근대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기주의 사상과 화해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소세키는 그의 소설에서 “자유와 독립과 나 자신”으로 가득 찬 근대인이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바로 깊은 “고독”의 심연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표현하고 있다. 소세키는 또한 유리문 속 37장과 38장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인간의 절망을 깨달은 자는 자살의 길 외에는 없는 것이다. 아니면 미쳐가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길은 종교심뿐인데, 이 종교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종교는 절망의 종교인 것이다.

소세키는 독자에게 사랑을 정의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아실현을 위한 사랑은 사랑의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소세키는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가페적 거룩한 사랑을 추구했는데, 일본인들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정의다. 이러한 가치추구는 소세키의 작가정신 속의 기독교적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독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품 속에 표현된 죄의식, 에고이즘과 사랑의 결여로 인한 지옥에 대한 인식이며, 구원과 마음의 평안에 대한 갈망이다. 평안에 대한 욕구,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확신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세키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단언했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소세키는 그의 작품 속에 기독교적 요소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가 ‘신에 의한 구원’의 길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소세키가 ‘신에 의한 구원’을 모색한 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명 구도자의 모습을 여러 작품 속에서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정신을 괴롭히던 문제에 충실한 자세로 임한 것일 뿐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세키는 ‘칙천거사(則天去私)’라는 일종의 종교개념을 도입하여 구원을 ‘멸망’으로 선언하고 만다. ‘자기분위’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죽든지, 미치든지,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든지”를 평생 갈팡질팡하면서 결단하지 못한 채로 미해결상태로 끝냈다고 할 수 있다. 절대자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분위의 윤리적 이상을 실천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스스로 인간의 절망을 증명하면서도 인간을 의지한 구원의 길을 모색한 것이 소세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소세키가 그린 여성상

작품 마음은 마음의 폭주, 즉 자아의 방종이 묘사되고 개인주의라는 서구 사조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으며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こゝろ)』은 소세키 문학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읽는 대표 작품이다. 왜 그렇게 이 작품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작품 테마가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

을 법한 ‘에고이즘’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선생님’, ‘나’, ‘K’라는 작중 인물은 “만약 당신이라면”이라고 독자의 ‘마음’에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 대답은 독자에게 달려있지만, 이러한 심층적인 테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천편 이상의 선행연구가 발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고이즘’이라는 주제마 외에도 ‘메이지의 정신(明治の精神)’, ‘연애와 우정(恋愛と友情)’, ‘죽음의 양상(死の様相)’ 등 다양한 논점을 함의하고 있는 문제작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흔히 ‘소세키 문학은 연애소설’이라고 정의되듯이, 그 작품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며, 그 여성들은 참으로 다양하게 묘출되고 있다. 이로써 소세키가 ‘근대’라는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시대를 사는 ‘여성’을 얼마나 집요하게 의식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작품 『마음』의 선생의 아내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슬픔을 가진 여성, 『마음』의 선생의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의중을 알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결혼 전후의 ‘시즈’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다음 세 가지 양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결혼 전’에 있어서는 ‘수줍음이 많은 성격’과 ‘불임성 있는 모습’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상기되던 것을 비롯하여, 거문고 연습 중 야단을 맞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장면 등을 볼 때 그녀가 ‘수줍음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생님’이나 ‘K’의 방에 오래 머물러 이야기를 나누는 친진난만한 모습도 보이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관심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보여 그 성격은 평면적이고 단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즈’의 ‘웃음’에 대한 해석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이 80년대에 나온 ‘책략가’설이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남성 논자들로부터 나온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하고자 한다. 즉 ‘시즈’의 ‘겉 없는 성격’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그녀가 뒤에 숨어서 사람이나 조종할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추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즈’의 ‘웃음’은 의도적으로 남자를 변롱하고자 하는 ‘기교’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말을 얼버무리기를 좋아한 탓에 나오게 되는 어린 여성의 극히 ‘자연스러운 웃음’인 것이다.

‘결혼 후’의 ‘시즈’에서는 ‘좌절하지 않는 모습’과 ‘가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이나 된 듯이 변해도 오로지 남편을 믿고 따라가려는 ‘좌절하지 않는’ 성격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남편에 대해 순종적인 그 자세나 말씨 등에서도 ‘좋은 아내’로서의 자질을 느꼈지만, 그것은 뿐만아니라 주방일이나 바느질 등 집안일도 잘 하는 현모양처를 표방하던 메이지(明治)시대 일반의 아내들의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합일점을 찾지 못한 원인으로서의 ‘시즈’와 ‘선생님’의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했다. ‘선생님’은 자신과 ‘K’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끝내 ‘시즈’에게 고백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시즈’와 ‘선생님’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즈’는 ‘선생님’을 이해하려고 애썼으며 애정을 다 쏟아 부었다. 또 ‘선생님’도 나름대로 ‘시즈’의 그 사랑의 ‘고결’성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의 내적 갈등을 ‘시즈’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백하지 않고 혼자 그 갈등을 가슴깊이 품고 가는 것이 바로 ‘시즈’를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고매한 사랑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끝으로, 소세키의 ‘후기 3부작’에 있어서의 여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소세키가 ‘시즈’상을 분석해 보았다. 원칙적으로는 전반적인 소세키문학의 분석을 통하여 대조해 가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논자의 연구성과가 그 범위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 3부작’에 한정하여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피안이 지나서까지(彼岸過迄)』의 ‘치요코’가 가진, 상대방을 두려워 하지않고 자기감정을 직재하게 표출하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성격’은 상대방에게 자기감정을 눈물로써 호소하는 ‘시즈’의 섬세하고 ‘속정 깊은 모습’과는 이질성이 노정된다. 또한 『행인(行人)』의 ‘오나오’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한 듯한 ‘답답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남편과 함께 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즈’의 삶과는 대치된다. 소세키는 정숙한 여성을 그리면서도 늘 여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의식하고 있음을 다른 작품에서도 알 수 있다. 소세키는 정숙하고 온순한 여성을 이상적으로 보는 반면, 자의식이 강한 ‘신여성’도 동경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 양의적 성격을 가진 ‘현숙한 여성’이 ‘시즈’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한 결과 ‘시즈’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머물러 슬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홀로 남겨진 아내’는 그 자리에 그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는 외유내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음』은 비애감이나 무상감을 함의하는 그런 연애소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즈’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상으로 소세키의 문학에는 주로 고뇌하는 현모양처형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의 대표되는 다섯 작품을 통해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와 그가 가지는 내셔널리즘 사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작가의 의도된 설정인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의 이러한 묘사는 일종의 작품을 그리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본 논문은 소세키가 여성의 운명을 경시의 의도로 그린 것이 아닌 국가비판의 간접적 방법으로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는 근대 지식인의 고뇌, 에고이즘의 문제, 근대화의 모순과 그들 등 메이지의 서민들이 갖는 고독과 불안을 남성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메이지의 봉건적 질서 사회 안에서 자란 소세키의 여성관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세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소설가인 지식인을 비롯하여, 갓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고등유민 등 모두 남성들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모두 남성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은 빠짐없이 나온다. 이 여성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숨기면서 산 봉건시대의 여성과는 차이가 있다. 자기 나름의 특별한 여성관을 가질 정도로 섬세한 지식인의 감성을 가졌던 소세키가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묘사했다는 점은 충분히 연구 자료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메이지 후기에 접어들어 일본사회의 움직임은 여성교육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시도하게 된다. 물론 메이지 후기의 여성교육은 지금과 같이 철저히 남녀평등에 근거한 교육 내용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마저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메이지유신 이전의 유교사상이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이러한 교육의 변화와 실제 사회인식의 변화에는 속도차이가 있었다. 소세키는 이와 같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여성의 근대화 과정에 있었다.

소세키는 동경제국대학을 입학한 엘리트 지식인의 한 명이었으며 이러한 그의 삶으로 보았을 때 그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했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예리한 감정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로 쓴 것은 자신의 단순한 사적인 감정표출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산 아래 객관적 응시의 산물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898년부터 일본의 천황제는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제국헌법은 황위

계승권에서 황녀를 제외시킴으로써 여제(女帝)제도 폐지를 하는 한편 측실 출신의 남성에게는 계승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금지라는 정책을 펼치게 한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여성을 사회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00년 전후의 교육 상황을 학생 수 700명 규모의 농촌의 소학교를 예로 들면 취학률은 남자 91.64%에 대해 여성은 58.74%로 여성의 취학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 1900년 초에는 민법이 시행되었고 고등여학교 제도가 정비되어 현모양처(良妻賢母)주의 교육이 확립, 보급된 시기이기도 하다. 현모양처라는 것은 여성은 가정일, 남성은 바깥일로 구분해서 그동안 가정에서 부권이 강조되었던 사회에서 여성이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다. 이런 분업화의 도입은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힘을 빌리겠다는 제국주의국가의 발상이었다. 교육을 통해 여성 특유의 배움의 권리보다 산업화된 모습을 정립하기위한 사상주입 교육인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여성이 고등학교까지 취학하게 되었으나 남성 중심의 유교사상 교육을 행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와중에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자본주의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집중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중등계급’ 등으로 불리는 기술자, 샐러리맨 또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게 되며 이들을 신 중간층이라고 부른다. 이 신 중간층은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고 학력에 의지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계층으로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교육, 학력을 강조하는 것이 가족의 생활 향상의 열쇠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여성의 취학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산(小産)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만드는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주장이 나타난 시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점점 국가에서 통제하던 여성에 대한 계급이 산업화로 인해 천천히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여성도 가정에서 조금씩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소세키의 집필시기의 배경에 있었다. 여성들은 봉건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성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비록 완전한 신식 여성은 아니지만 기존 세대가 이루어온 남성 위주의 권력구조 하에서 조금씩 자의식이 싹트는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도 동시에 그 삶의 모양이 변화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세키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일본에서는 일어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가장 근저에 있는 문제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세키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의 측면에서 당시의 문명개화의 실태를 포착하고자 했다. 소세키는 “개화의 심리”를 의식해서 탐구한 최초의 문학자였던 것이다.

여기서 소세키는 일본의 현대 개화가 외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화과정에서 이전세대가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일종의 형식 중 하나로 여성의 현모양처 교육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삶 모양을 변화시킨 이 현모양처 교육의 형식은 교육이지만 그 내부의 뜻은 전근대적 가치관에 기반한 모순된 제도를 의미한다.

당시의 일본은 근대화 국가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매진하는 동시에 근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일본의 계몽사상가들과 지식인들은 국가 건설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깨닫고 여성에게 ‘양처’뿐만 아니라 ‘현모’도 되어주길 요구했다. 그들은 남편을 도와 자녀를 교육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 해야 했다. 여성이 존재하는 의의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지식인은 이러한 사상을 따랐다. 기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소세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을 요물의 표상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주장과 소세키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정적 여성관이 작품에서는 여성경시로 나타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소세키가 현모양처 교육의 당사자라는 여성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경시라고 하기보다는 내면적 고뇌를 가진 고독한 사회적 일원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여성이 스스로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세키가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주위의 남편과 부모에게서 그렇게 인식되어있는 것은 사회구조상 이해할 수 있지만 여성이 스스로를 소유권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한 소세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고통, 남편의 예고이즘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여성 등, 곳곳에서 여성만이 짊어지는 삶의 고통을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경시라는 오해를 낳았는가? 그것은 소세키가 문학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이 문학자로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세키의 서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이것은 하나의 창조적인 기법이며 따라서 개인의 내면 욕구를 분출한 여성에게 고뇌는 필수적이다. 또한 소세키는 작품 속에서 교육받은 여성에 한해서만 그런 고뇌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던 소세키에게 개인의 욕구를 우선시한 여성은 결코 메이지의 여성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소세키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역할 제시로 여성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상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규범을 어긴 작품 속의 여성은 죄책감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성상을 통해 소세키의 내셔널리즘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가 가진 엘리트 의식은 의도적으로라도 여성을 현모양처 형으로 그리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경시의 시대에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함의 문제는 동시에 문명개화가 일본에 가져온 모순의 문제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점 역시 자각하고 있었음을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여성의 교육내용은 여성경시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교육을 받은 여성은 자신의 의지가 생기고, 각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 속의 여성들이 경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소세키의 여성들은 남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즉 변화에 민감한 남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성상의 인식의 한계에 다다르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 여성을 보고, 그 틈새에서 혼자 죄책감을 떠안는, 이해받지 못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감정은 오히려 여성의 삶을 충실하게 그렸음을 반증해준다. 여성경시라는 이분법적인 구별이 아닌 개화의 모순에 고통스러운 존재로서 텍스트 속에서 빠트릴 수 없는 등장인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을 고려한다면 소세키는 소세키 자신의 여성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내셔널리즘에 편승한 국민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작품 구성방법의 하나로 여성의 삶을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세키의 소설가로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그의 작품을 기술적으로 세련되고, 내용면에서 깊이와 무게를 더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동기로 기존의 소세키의 여성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소세키가 일관적으로 작품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그린 데는 소세키가 현모양처 사상을 가진 여성을 그리고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이들 여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손실, 나아가 국가의 손실에 연결된다. 소세키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모양처 사상은 좋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소세키의 서간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세키 문학이 가지는 문학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그의 작품에서 여성은 “봉건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라는 위치와 함께 여성으로서 인정받을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신분상승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굴레를 의미한다. 산업화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경우도 늘어났으나 소세키가 산 시대는 완전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진 시대는 아니었다. 따라서 소세키는 이와 같은 여성의 비극을 그림으로써 근대가 낳은 또 다른 의미의 시대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유서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단지 선생의 무기력한 생활이 친구K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아내는 이런 선생을 오해할 수 밖에 없었다. 한 번은 둘이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만 아내는 울고 말았다. 다카시마(高島, 1973)107)는 소세키가 『마음』에서 그리고자 한 것은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의 불가능이었다고 논한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과거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것을 보았을 때 불가능까지는 볼 수 없다. 일단 부부는 화자인 “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실제로는 아주 다정하게 보인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여자란 오직 한 사람 밖에 몰라. 아내 이외에 그 어떤 여자도 나에게 여자로 보이지 않아. 물론 아내도 나를 하늘 아래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로 생각하고 있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둘은 가장 행복하게 태어난 한 쌍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야.”

미야자키(宮崎, 1987)110)는 소세키가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발상은 없고 여성경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선생의 사랑을 보면 부인을 무시하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선생과 부인은 선생이 서생시절에 만난 사이로 부인은 선생의 하숙집 주인의 딸이었다. 이렇게 중매가 아닌 연애를 해서 이루어진 커플은 메이지 시대에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선생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아내는 늘 걱정과 안타까움을 안고 살았다. 선생은 ‘나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고 하는 가치관속에서 산다. 그런 선생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아내는 자신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즉 부인은 사랑이 불가능한 선생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는 오직 선생을 향한 확신이 있을



뿐이다.

“사모님의 말엔 가시가 달린 듯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그 말투가 귀에 거슬리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았다. 사모님은 자신에게 지능적인 부분이 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일종의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다. 그보다 사모님은 깊이 묻어 두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듯이 보였다.”

위와 같은 “나”의 시선은 아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는 신식여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생에 대한 사랑을 묻자 선생은 자기 곁을 떠나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혹은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금 선생이 인간으로서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드리고 있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내의 사랑이 일방통행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내는 결혼 전에 자유연애를 했지만 부인으로서의 사랑받은 적이 없는 봉건시대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내는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남편과의 심적 거리감을 느낀다. 고마샤쿠(駒尺, 2005)115)는 소세키가 남성중심발상의 사회제도를 제시했다고 논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배자이자 억압자인 것보다 공감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다. 아내는 “나”가 찾아가자 옷 세탁과 손질, 수선도 다 해주었다. 아이가 없는 그녀는 “나”를 보살피줌으로써 아이가 없는 허전함을 달래야 했다. 손으로 직접 짠 옷을 손질하기 애먹었다고 불평하면서도 아내는 귀찮은 표정하나 짓지 않고 일을 한다. 이것은 봉건시대 여성이면 당연히 하는 현모양처의 역할이다. 이렇게 가정에 봉사해야 한다는 발상은 소세키가 그린 여성의 공통점인 봉건주의 시대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 하는 데는 두 사람의 과거의 사랑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생은 과거에 부인과의 첫 만남에서 머뭇속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이성이라는 향기가 새롭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면서 염세적이 된 자신이 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영성한 꽃꽂이를 감상하고 서 두른 거문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즉 아가씨에게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선생은 그녀에게 신앙에 가까운 사랑을 키워갔고 타인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가슴 속 깊이 맹세했으면서도 딸(=아내)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선생이 K라는 친구를 하숙생으로 들여오자 아내는 두 남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교제를 한다.

아라이(荒井, 2010)122)는 선생의 죽음이 질투에 의한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즉 선생의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랑의 형태를 띠며, 그 속에 사랑은 존재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미성숙한 선생의 사랑은 K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선생은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K의 고백을 들은 후 먼저 청혼한다는 배신 행위를 한다. 치바(千葉, 2003)123)는 작품에서 배신·간통과 같은 반윤리적 주제를 가지는 것이 단순히 사태로의 도의적 의식만이 아닌 소세키의 근대라는 시대의 비판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근대라는 시대의 비판이 여성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하숙집에 남자가 두 사람이 되자 이 때까지 선생을 대했던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 선생에게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즉 아내에게는 선생을 좋아하는 감정의 표현이다. 하지만 하숙집에 들어온 K하고도 친해지면서 같이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여성상은 개인이 억압된 시대에서 교제라는 큰 틀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일이 된다. 작가는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놓은 여성에게 결국 결혼을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아간다는 인간관계를 그렸다. 이러한 불행한 결혼은 여성 개인의 고뇌를 낳았던 것이다. 또 『마음』의 선생의 아내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의 의중을 알 수 없음에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세키의 여성인식은 메이지 중기에도 여전히 개인의 자아가 억압되었던 봉건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현모양처 모습은 국권 강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따라야했던 지식인의 단면을 보여준다. 소세키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텍스트를 통해서 여성이 가지는 고뇌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우위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여성 역시 자신을 남성의 도구로 자각했고, 그러한 사회적 구조에 불평등함을 토로하기보다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세키는 이러한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면서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침투된 유교사상의 보급은 여성의 삶에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소세키의 자각하는 여성들은 시대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고민한 당사자들이었다. 가치관은 자유로워졌지만 천천히 변해가는 시대상황 때문에 남성과의 공유는 할 수 없는 쓸쓸함을 안고 사는 여성들이다. 작가는 “자의식”에 눈떴지만 사회적 인식에 갇혀서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인간을 그리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상은 소세키의 여성관을 투영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응시한 통찰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여성들은 모두 남편과 함께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것은 당시 시대가 원하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직업인 여성에게 그 업을 다 하지 못한다는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소세키가 말하고자한 것은 교육은 반드시 자아를 발달시키며 여성의 자아각성은 그러한 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제압하는 것은 불행(=사회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낳는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세키의 여성들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은 자아 각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아각성을 ‘죄’로 취급하는 현모양처 사상을 그리면서 내셔널리즘의 구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세키는 여성경시를 작품에 나타낸 것이 아니라 “현모양처”라는 일본식 “문명개화”가 초래한 모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받은 여성이 반드시 현모양처가 아닌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과 실제 현실의 여성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은 가정에 충실한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성의 자의식이 생김으로 인해 기존의 봉건사상을 지킬 수 없는 여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도출은 여성경시라기보다 그가 여성을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세키가 부정적으로 여성을 묘사한 것은 의도된 것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획된 여성 묘사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한 문명 개화의 어두운 면을 그렸으며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여성이 경시된 인상을 주고는 있으나 결코 여성의 감정에는 무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산 시대는 봉건적 가치관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개화기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외부로부터 억압 받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결혼생활'이라는 삶의 모습을 창출한다. 이와 같은 선택은 여성에게 좋은 면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들었다.

이러한 소세키의 여성상은 비단 여성에 대한 소세키의 긍정적인 시각만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그의 작품 세계를 폭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봉건사상에 서 탈피하지 못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남성의 소유물로 규정짓는 여성의 발견을 통해서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깊은 응시를 통해 관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소세키가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는 의견 제시를 여성을 통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역사적 배경 1)제국주의 관점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은 청국에 대해 반(半)식민지적인 이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은 서구 열강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것을 기회로 하여 국내 잉여자본의 수출을 시작한다. 이들 열강에 뒤질세라 일본도 자본 수출을 국가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전쟁 후라 일본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자본 수출은 오히려 짐이 되었지만 식민지 획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국주의적 환경에서 일본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국민 교육에 의하여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제국주의 교육은 이극고 자기 해방의 시대를 맞이한다. 메이지 30-40년(1898-1908)에 접어들면 이제까지의 위로부터의 국가주의 교육을 떨쳐버리고 자아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근본에서부터 생각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대체적으로 메이지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외친 제국 일본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인 지식인으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다. 개인을 국가의 일원으로 인식시킨 문화정책은 대표적인 장치로 학교제도나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 활자매체를 이용하여 전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당시 발행된 소세키 문학도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세키 역시 문학가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작품 마음 에서 메이지 천황 죽음에 대해 부친이 받은 충격은 당시 일본국민들이 느꼈을 비통함이 부친을 통해 투영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주인공 선생의 자살의 원인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한 충격보다는 일본인 특유의 문화구조 중에서 수치(恥)문화와 체면(世間體)문화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즉,선생은 자신의 아집 때문에 친구 K가 자살한 데에 대해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그런 와중에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노기 대장의 자살은 선생에게 죽음의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선생이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노기 대장의 자살 소식을 듣고 죽으려고 결심한 것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수치문화와 남들에 대한 체면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메이지 신정부는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국대학령’에 따라 제대를 설립하였다. 1886년에 제국대학(1897년에 도쿄대학대학으로 개칭), 1924년에 경성제대가 설립되었다. 제대는 미국과 유럽에 뒤지지 않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켰으며 졸업 후에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을 모델로 하였으며 서양을 따라잡는탈아입구가 목표였다. 따라서 제대의 영문학과는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역할을 하였다. 제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대에서는서구의 선진적인 기술을 일본에 이식하기 위해서 원서를 해독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입학 요건으로 삼았다.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나쓰메 소세키는 졸업 후 영국유학을 통해 서구 근대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가 영문학을 선택한 이유도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이기주의와 위선,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문명사회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비판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말년의 작품인 『마음』에서는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마음』에서 메이지천황이 병사하고 메이지시대가 마감함으로써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낀 선생님도 메이지천황에 이어 죽음을 선택한다. 메이지정신은 국가를 위해 죽음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와 천황이 중심에 있었다. 메이지천황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 선생님도 메이지정신과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인물인 것이다. 즉 도쿄제국대학 영문학과에서는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문호이며 국민작가인 나쓰메 소세키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의 근대수용 제국주의화되어 가는 시대에 근대화를 추진한 메이지 신정부는 새로운 근대국가의 모델을 서양에서 구했다. 그중에서도 당시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영국, 그리고 일본을 건국으로 인도한 미국을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내각은 제국대학령을 내리고 도쿄대학을 제대로 바꾸면서 영문학과를 개설하였다. 근대 일본은 영문학의 필요성을 메이지시대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대로 이름이 바뀌기 전의 도쿄대학에서도 일문학과와 한문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영문학을 3년간 이수하게 하였다. 하지만 영문학과라는 학과가 개설이 된 것은 제대가 설립되면서이다. 이는 제국의 ‘관료 양성’이라는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일본제대는 당시의 최고 엘리트만이 가는 종합대학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당시 도쿄제대 영문학과 교수는 제임스 메인 디슨(James Main Dixon)과 라프카디오 헤른(고이즈미 야쿠모)이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제임스 메인 디슨의 수업을 들었다. 제임스 메인 디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문학자로 일본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 라프카디오 헤른은 그리스 출신 일본인 귀화작가로 유명하며 일본의 괴담과 민담을 수집한 『괴담』의 작가이고 일본의 문화를 서구에 소개한 선구자이다. 도쿄제대 영문학과에서 학생들은 서구출신의 교수한테서 직접적으로 영미세계를 접하였다.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으로는 나쓰메 소세키, 사이토 다케시(齋藤勇), 우에다 빈(上田敏),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나가요 요시로(長與 善郎), 다카미 준(高見順),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가 제국 일본은 제국대학령에 따라 일본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도쿄대학(1877년 설립)을 제국대학(1886년)으로 개칭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간은 제국대학으로 불렸으나 1897년에 교토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제국대학을 도쿄제대로 개칭하였다. 이후 제국대학은 제국대학이 폐지된 1947년까지 제국대학령에 따라 설치된 여러 대학을 총칭하게 되었다. 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등

문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도쿄제대에는 문학사에서 거론되는 유명한 작가들이 대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제대 출신들이 일본근대문학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쿄제대 문과대학 학생들은 제국문학회라는 문학단체를 만들어 『제국대학(帝国文学)』(1895-1920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총 296권이 간행되었다. 이 잡지는 낭만주의와 반자연주의의 거점이 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아카데미한 연구논문적인 색채가 강하다. 다이쇼문학의 거점이 되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동인지(1907-1917년)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 1907년 제1차동인지는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가 해외의 신사조를 소개하기 위해 창간한다. 제2차동인지는 도쿄제대 문과의 동인잡지로 계승된다. 제2차동인지에서 다니자키 준이치로, 제4차동인지에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문단에 배출된다. 이처럼 도쿄제대 학생들은 『제국대학』 『신사조』를 중심으로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여 일본근대문학의 모델을 제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 도쿄제대 영문학과에서는 메이지문학을 대표하는 나쓰메 소세키 그 외에도 도쿄제대 출신은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국문과), 모리 오가이(森鷗外, 의학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 重治, 독문과),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불문과 중퇴),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법학부) 등이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제대에 영문학과가 개설되고 4년 뒤인 1890년에 입학하고 1893년(26세)에 졸업한다. 그는 영문과를 2번째로 졸업했으나 그 해 졸업생은 나쓰메소세키 한 사람뿐이었다. 도쿄제대는 소수의 수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었으며 나쓰메 소세키가 입학할 당시 적격자가 없으면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00년 문부성 장학생으로 2년간 영국에 머물렀다. 그는 영국에 유학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구를 모델로 한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고민했다.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제대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으나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사히신문사 전속작가가 되었다. 그가 교수직을 그만둔 이유는 동양적인 근대의 창출을 문학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다이쇼시대 초기인 1913년에 동경제대 영문학과에 입학하며 1916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나쓰메 소세키의 문하생이며 후배이기도 하다. 졸업생 20명 중에 2등으로 졸업한다. 다이쇼시대가 끝나자 그는 왠지 모를 시대적 불안감으로 35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의 죽음과 다이쇼문학의 종언이 겹치면서 그는 다이쇼를 대표하는 작가가 된다. 메이지시대의 나쓰메 소세키가 **일본이 나아가야 할 근대화**에 대해 고민한 작가라면, 다이쇼시대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제국 일본에서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내적갈등의 전형을 그리고 있다. 도쿄제대 영문학과는 일본 근대문학을 이끈 대표적인 학과이대로 부르기로 한다. 1886년에 제국대학에 졸업한 학생 수는 70명이었고 문과대학 문학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은 4명이었다.

『마음』은 주인공인 ‘나’와 ‘선생님’을 통해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간의 고뇌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다. 내용은 크게 <상편 선생님과 나>, <중편 부모님과 나>, <하편 선생님과 유서>로 나누어져 있고 <상편 선생님과 나> K가 자살하자 선생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직업도 없이 폐인처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한다. 선생님은 평생 K를 배반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외롭게 살아간다. 이 소설에서는 남녀의 삼각관계와 금전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테마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선생님의 자살을 메이지의 종말과 천황의 죽음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마음』은 선생님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시즈를 둘러싼 K와의 삼각관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주의가 있다. 다음은 마음의 마지막 부분이다. 제국주의의 실현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메이지정신>이라는 어구는 천황제와 메이지시대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정치적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한다. 마음은 선생님의 죽음을 제국주의의 기반으로 성장한 메이지시대의 종말로 보고 있다. 메이지천황의 서거 후에 노기 장군의 순사, 선생님의 자살은 메이지정신, 즉 제국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메이지시대가 끝난 이상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생님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메이지정신을 상징하고 천황의 죽음은 메이지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마음』은 주로 주인공 나와 선생님의 우정과 연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근대 지식인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부분도 선생님의 유서이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쓰메소세키가 마음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메이지시대를 산 나쓰메 소세키의 지나치게 결백한 윤리성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메이지정신이란 국가를 위해,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무사의 정신과도 연결된다. 근세 초기에 순사(殉死)는 신하가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순사는 주군을 따라 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피지배계급인 약자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순사함으로써 순사를 미덕으로 여겼다. 또한 일본의 무사들은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거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할복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위엄과 예절을 지키려고 했다. 무사도(사무라이 정신)는 명예로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무사도가 메이지시대의 제국주의로 이어진 것이다. 메이지천황의 서거와 메이지시대의 종말, 그리고 노기장군과 선생님의 죽음도 주군을 따라 죽는 무사도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메이지정신을 잘 보여준다. 선생님의 죽음은 메이지시대와 메이지천황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가 되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배후에는 메이지천황이 있었다. 노기장군도 선생님도 천황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은 메이지정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메이지정신은 국가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롭게 죽는 것이었다. 메이지천황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관여하였다. 메이지천황은 곧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음 텍스트의 이면에는 국가를 위해 죽을 것을 강요하는 메이지정신과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는 현대 일본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담론과 연관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제국주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나쓰메 소세키는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나 한학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서구 자본주의의 폐해를 목격함으로써 맹목적으로 서구를 따라가는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가 맹목적으로 서구를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학에 대한 소양이 깔려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이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이고 개성적인 근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서구비판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잘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이르면 동양적 근대의 창출을 주장하고 서구비판을 했던 그는 결국 제국주의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일본의 근대는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당대 지식인의 최대 과제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소세키는 서구문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양적 근대의 창출을 주장하는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한계이다. 이처럼 동경제대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는 메이지시대 초기에



태어나 끊임없이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들은 제국 일본의 역할은 물론, 메이지시대와 다이쇼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과 인간의 참된 역할을 제시하였다. 결국 근대 일본정부가 제국의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설립한 제대는, 동경제대 영문학을 전공한 나쓰메 소세키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국수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이다.

## 역사적 배경 2)메이지 천황 죽음과 메이지시대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에는 일본 메이지 천황 죽음의 충격과 당시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메이지 정신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 은 1914년 4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소세키가 전속으로 있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의 아사히신문 에 110회에 걸쳐 연재된 말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1894 ~ 1895)직후부터 메이지 천황의 죽음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후 이후 계속해서 추구하려 했던 에고이즘의 문제, 즉 인간의 고독함과 사랑의 불가능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소세키는 작품 마음 의 주인공 선생 의 심리를 이용하여 에고이즘 분출에 의한 욕망은 고독하고 불안한 인간상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 예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메이지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나쓰메 소세키는 1867년 왕정복고 선언 → 1868년 메이지유신 → 1894 ~ 1895년 청일전쟁 → 1904 ~ 1905년 러일전쟁 → 1911년 메이지 천황 사망 → 1913년 대역사건(大逆事件)등으로 이어지는 출렁이는 역사의 현장을 소세키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제시한다.

그의 전기 삼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시로 , 그 후 , 문 을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발표했다. 그는 전기 삼부작을 통해 사랑을 주제로 한 지식인의 고뇌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안, 고독이라는 문제를 묘사했다. 그의 후기 삼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춘분이 지날 때까지, 행인, 마음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아집 문제와 지식인의 마음의 갈등 등을 날카롭게 묘사 했다.

아무튼 나쓰메 소세키는 러일전쟁 이후 가장 활발하게 활약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비롯하여 그 후 등 그의 작품의 곳곳에는 러일전쟁에 대한 언급이 자주 묘사되어 있다. 특히 앞장에서 논한 도련님은 마쓰야마에서의 교사 생활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쓰여졌으며, 러일전쟁 승리 이후의 일본의 사회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마음 의 주인공 선생은 메이지 정신을 표상하는 천황의 죽음과 함께 삶을 마감한다.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평가는 여러 갈래여서 한 마디로 압축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작가 소세키가 메이지 시대를 자신의 삶과 포개어 놓고 여기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작품 마음 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본 근대정신의 원형(原形)을 탐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후발 근대국가 일본이 문명개화로 대변되는 서양 따라잡기에 골몰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간적·공간적 낙차를 극복하고 서양의 제국들과 동등해져야 한다는 초조감이 40여 년에 걸친 메이지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용납되지 않는 듯 보였다. 문명개화의 모델인 서양과 동등해지지 않는 한국가의 독립이나 개인의 독립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감이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사회상을 정밀하게 묘사한 소세키는 일본 근대문학 사상

위대한 존재이고, 많은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현재도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그의 초상이 일본 지폐 천 엔(千円)권 속에 아로 새겨지고 난 이후, 계속 변함없이 그에 대한 붐이 현재 일본에서 일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마음의 텍스트를 철저하게 정독하는 과정을 통해 메이지 천황 죽음에 대하여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충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친의 충격, 노기 대장의 충격, 선생의 충격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소세키가 묘사하려고 했던 메이지 천황의 죽음의 진정한 의도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

작품 마음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쳐 부국강병이라는 목표 아래 오로지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길만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던 시대였다. 작품 속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모름지기 작품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창작되는 한편, 작품 속에 잠겨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당시 사람들의 정서 속에 숨어들어 시대의 특징을 낳는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어느 군인의 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청일전쟁 때인가 언젠가 죽은 것이라고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전까지는 이치가야의 사관학교 옆인가에 살고 있었는데, 마구간 따위가 있으며 집이 너무 넓어서, 거기를 팔아 버리고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사람이 없어 쓸쓸하니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의 텍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은 메이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메이지라는 시대는 소세키의 생애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메이지는 마음에서 시간적 배경 뿐 아니라, 강한 시대적 정신으로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점검해 보면 1867년 에도막부(江戶幕府)가 정권을 명치천황에게 반환한 이른바 대정봉환(大正奉還)과 1868년 명치 신정부의 발족 등으로 일본은 근대 시민 사회로 크게 전환해 갔다. 이러한 혁명적인 근대화를 일본인들은 메이지유신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메이지유신은 정치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에서도 근대화의 개화를 열었던 사건임에 틀림없다.

새로 들어선 메이지 신정부는 구미(歐米) 여러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부국강병책을 피했다. 그러나 부국강병책의 영향으로 일본은 국수주의의 대두를 보게 되어,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 대륙에 시장을 구하기 위하여 진출하기 시작했던 일본은 한국에서의 세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국과 중국에서 정치적·군사적 권익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오던 러시아와 1904년(明治37)2월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전쟁의 경과를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연승으로 시종되었다.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 불리던 러시아 육군을 여순(旅順)·대련(大連)·봉천(奉天) 등지에서 격파하고 일본 해군은 러시아의 발틱함대마저 격파한다.

그러나 이 러일전쟁의 전비(戰費)는 청일전쟁의 10배나 되었으며 일본의 국민 생활도 고통스러웠고, 병력이나 탄약의 결핍도 걱정했다. 포오츠머스에서 강화 회의를 열고 9월에 조약을 체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은 종식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인한 일본 사회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립한 일본은 놀라운 경제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변모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 번영은 일본문학과 일본 근대소설을 세계에 알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판단되며, 그와 같은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본 문학을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권혁건은 1994년 8월 20일에 발표한 나쓰메 소세키 文學世界 란 저서를 통해 일본 근대소설사를 논하는 가운데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본문학 전문가가 생겨나고 일본 사람이 아닌 전문 번역가들이 일본 근대소설을 매끄럽게 번역한 결과 일본의 근대소설이 세계무대에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전비(戰費)에 고심하던 일본 정부는 소득세, 면제품, 모직물에 대한 증세를 단행한다. 또한 전쟁은 많은 병사가 동원되어야 했으며, 수많은 부상자와 전사자가 생기게 되어, 형제를 잃은 집안의 슬픔은 대단하였다. 생활의 곤란과 전사자 및 부상자의 증가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반전 기분을 불러 일으켜, 일부의 일본 국민들은 전쟁 반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당시 반전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평민사회(平民社會)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등의 그리스도교신자,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등의 낭만파 문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과감하게 평민신문(平民新聞) 등에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발표했다.

어쨌든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제한된 승리였다고 판단된다. 영국과 미국의 지지가 있어 싸울 수 있었던 이 전쟁은 러시아로부터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재정을 떠맡은 채 전쟁은 끝났다. 때문에 이 전쟁에 많은 희생을 치른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족스런 전쟁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의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약 조인을 기하여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강화조약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도쿄에서 강화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에 참가했던 군중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강화 반대를 넘어서 반권력투쟁으로 번져 내무 대신의 관저와 정부에 동조적인 국민신문사를 비롯하여, 도쿄 시내의 파출소의 70% 이상을 불태워 버리는 폭동으로 치달았다. 이 사건을 히비야 폭동 사건(日比谷焼き打ち事件)으로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히비야 폭동 사건은 일본 정부의 계엄령에 의해 진압되나 정부의 전쟁 정책과 국민에 대한 끊임없는 희생 강요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저항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자본주의의 산업 체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또한 승전에 의해서 높아진 국제적인 신용을 이용해서 외자 도입을 촉진하였기 때문에, 호황이 이어지고 산업은 약진을 이루었다. 특히 군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져 제2차 산업혁명이 성립되었다.

청일전쟁 때부터 국제적인 제국주의 세력의 원호 아래 한국·중국 침략을 감행하여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에는 광대한 식민지를 갖고 그 곳을 자국 경제 발전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곳을 자국인의 활동 무대로 삼아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형성시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 대륙에 진출하였다. 이 당시 일본의 국가적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다. 산업은 발전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국민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대단한 부자가 탄생했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과 노동자는 심하게 가난한 생활을 강요당했다. 모든 것은 전쟁과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자유스런 인간다운 생활을 찾는 국민의 요구는 억눌림 당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당했다.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의 요구는 모두 죄악으로 취급당해 연애도 죄악으로 취급되었던 사회였다.

아무튼 러일전쟁 승리 후의 일본은 근대국가, 근대사회의 체제가 대략 갖추어졌으며, 사회는 더욱 빨리 근대화를 향해 변화해 갔다. 그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내적 갈등과 현실 비판을 동시에 체험하며 추구 하게 되었다. 또한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중산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사상이 성장했다. 많은 중·소 자본가가 나타나 힘을 축적했으며 봉급생활자와 같은 중간층 도시 소시민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언론인, 학교 교원, 의사, 변호사, 기술자 등 지식인의 층이 두꺼워져 하나의 사회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산계급의 급속한 성장은 문화나 사상 면에서도 나타나 러일전쟁 이전 단계보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성격이 훨씬 강화되었다. 특히 많은 지식인들은 현실과 자신과의 관계를 추구하려는 개인주의에 매력을 느껴, 문학 면에서는 가족제도와 개인주의의 문제, 집안과 개인의 자아와의 대립·모순점이 대두되었다.

###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한 충격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절대시하는 근대 일본의 대대적인 천황 숭배는 역사적으로 그다지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근세까지는 말할 나위도 없고 메이지 초기에도 천황 숭배는 정착되지 않고 있었다. 메이지유신이라는 대변혁의 결과 국민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전후의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근대로 소급하는 일본인론이다. 근대 일본의 국민성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절대주의적인 천황제의 확립이 낳은 천황 숭배의 경향이다.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근대 국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입헌군주제에 기초한 현인신 천황에 대한 복종심을 국민에게 강제했다. 그 때문에 문화와 교육의 모든 면에서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교과서나 교육칙어(教育勅語) 등을 통해 존황(尊皇)·충의(忠義)·효행(孝行)·복종의 정신을 국민성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냈다.

천황제의 확립과 병행해서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 정부는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이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구미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서양 숭배의 근대화 지향과 천황 숭배에서 볼 수 있는 봉건적인 신분제 의식이 결합되어, 근대주의와 봉건주의의 이중 의식이 국민성 내부에 성립했다. 서양 숭배는 한편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는 이중 의식을 낳게 된다. 서구의 근대 국가 탄생이 어느 정도 개인의 해방이라는 측면을 지녔던 데 반해, 일본 메이지 국가의 출발은 그와는 반대의 성격을 띠었다. 곧 일본이라는 근대 국가의 등장은 개인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책임과 복종만을 지니는 신민이라는 명예를 씌웠던 것이다.

실제 신민이라는 용어는 메이지 14년 국회 개설의 칙유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8년 후 제국 헌법에서 일본 국민을 정의하는 용어로 공식 인정된다. 일본 국민의 성격은 철저히 천황의 정체성에 의해 규정되었다. 천황이 모든 권위와 권한의 담지자였으며 국민은 의무만을 지닐 뿐 최소한의 권리도 갖지 못했다. 국민들은 신권적, 영속적 존재인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바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 국민은 언제 어디서라도 천황에게 귀일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위상을 자기화시켜 나갔다.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해서 고찰할 경우, 국민의 천황에 대한 의식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 그러나 패전으로 천황은 신격을 잃고 인간 천황이 되어버렸지만, 현재도 아직 천황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천황제 국가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메이지 국가가 민중의 영령(英靈) 숭배 의식을 조작한 사실을 지적한 역사학자 오하마 데쓰야(大浜徹也)는 논문 영령 숭배와 천황제 에서 메이지 국가는 천황 중심의 국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사자의 원령을 천황신앙에 끌어다 붙임으로써, 충혼에서 영령으로까지 승화시켜 나갔다. 그것으로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를 둘러싼 심정(心情) 체계가 정착되고, 천황제 국가의 지배 원리가 관철되어 갔다. 전사자(戰死者)는 야스쿠니 신사에 묻혔으므로 유족으로서는 신사를 숭배하는 것이 육친과 대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이리하여 국가는 전사자를 매개로 하여 민심을 야스쿠니 신사로 향하게 했다. 출정 병사가 군대 저급통장을 양친에게 건네줬다는 것 등을 생각할 때, 영령이 되는 동기는 천황 폐하를 위하여 한 몸을 희생으로 봉공(奉公)함으로써, 한 집안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는 효행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천황제란 이러한 절망적 상황으로 지탱된 질서로서, 민중은 영령 숭배의 이름을 부여했다.

그렇다면 당시 천황이 요구하고 국민의 핵심적 의무로 부가되었던 충성이란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지녔을까?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충성은 그때까지 몇 겹으로 겹쳐지던 봉건적 충성을 '정령의 귀일'을 통해 국민적 통일의 상징인 천황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당시 정부가 가진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막부의 반역을 차단하고자 한 의도로, 봉건적 충성과 그 기반을 해체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부에 대한 충성을 곧바로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시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 인민들은 어수선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다양한 모습을 본다.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힘은 곧 정의라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이는 명분론에 기초한 충신과 역적의 구별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요컨대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변을 통한 근대의 출발에서 전통적 의미의 충성이란 이미 소멸되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충성의 부재를 지탱해준 것이 가족주의의 강조였다. 글자 그대로 호적이었으며, 국민 개념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호적을 통해 가족, 촌락 공동체, 국가를 강력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근대 일본에서 천황제 국가 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곧 가장과 가족이라는 수직적 관계의 확대로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하여 '충군'과 '애국'의 결합이 충성의 정치적인 조달에 있었다는 명료한 인식을 만들게 된다.

1885년 일본의 군인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공포된 군인 칙유에서 국가와 군주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였다. 여론에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여러분 본분의 충절을 지켜야만 한다. 동시에 충성은 도덕적 행위의 문맥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충성은 무사도와 마찬가지로 선악의 건전한 차별, 신의, 그리고 사치와 낭비의 회피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청일전쟁 직전에 일본의 육군 및 해군 경비는 합쳐서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세입 부담은 단일 최대였다. 군 복무도 정치 사회에서 천황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그 지위는 천황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육군은 치안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기에 육군의 독립성과 충성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황실과의 특별한 관계가 허용되었다. 천황은 총사령관이 되어 군사 행진, 군사 연습, 열병식, 열함(閱艦)식에 참석하였다. 황족들도 정기적으로 군사직을 보유했다. 이에 따라 육군 및 해군 참모 총장은 당연히 각각



육군성과 해군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모든 지휘권 관련 문제에 관해서 천황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 부친의 충격

마음의 양친과 나에 있어서 나의 부친은 그 당시 메이지 시대의 분위기와 국민들이 지녔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친은 국가적 독립의 상징이었던 메이지 천황에 대한 일체감을 보이는 장면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 1910년 당시 60세 이상인 이른바 아버지 세대는, 메이지유신 이전에 유교 교육을 받아 개인보다는 가문을, 가문보다는 국가를 비롯한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많았다.

나의 부친의 봉건적 관념은 아들 나 의 취직 문제를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학문은 사회적 공명과 가문의 영광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친은 취직을 핑계로 도쿄로 가려는 아들을 보면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불평한다. 좋은 점은 자식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이며, 나쁜 점은 그러한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갈등은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가문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과 입신출세는 도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은 가문의 보전과 명예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부친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일생 최대의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시골 사람이며, 무지하고 촌스러움이 묻어있는 옛날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황이 위증하단 소식을 접한 부친은 매일 아침 신문이 오길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천황에 관계된 글을 읽었다.

메이지 천황의 발병을 전후하여 중태에 빠진 부친은 천자님의 병환도 나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병과 천황의 병세를 비교하면서 걱정을 한다. 그리고 부친은 천황을 늘 천자님이라고 부르셨다. 이후 메이지 천황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부친은 신문을 손에 꼭 쥐 채로 아아, 아아 하시며 잠시 신음 소리만 내더니 천자님께서 결국 돌아가셨구나. 그럼 나도— 하고 슬픔에 빠져 곧 메이지 천황을 따라 죽을 것 같은 말을 남긴다. 메이지 천황 죽음 이후 부친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간다.

이후 노기 대장이 메이지 천황의 장례식 날 따라죽을 것을 신문을 통해 마음에 나타난 전통 계승의 구조 알게 된 부친은 혼자 큰일이야 큰일 하면서 충격을 받아 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했다. 더불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져 노기 대장에게 죄송하다. 참으로 면목이 없다. 아니, 나도 뒤를 따라서...라는 등의 말만 계속한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절규했던 부친이 노기 대장이 순사했다는 사실을 접한 뒤 급속도로 죽음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처럼 부친의 정신적인 충격은 육체적으로는 자연사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순사에 가까운 것이다. 즉, 부친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메이지 시대의 종언으로 받아들여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일본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메이지의 시대정신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부친이 메이지 정신에 순사(殉死)한다는 이념적인 시대적 분위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던 소세키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 속에 묘사된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한 부친의 태도에 대해 고이즈미 고이치로(小泉浩一郎)는 부친의 메이지 천황 서거에 대한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메이지 시대 대부분의 국민이 지니고 있었던

내셔널리즘(nationalism)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는 메이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독립의 상징으로서 천황에 대한 국민, 또는 서민들이 일체감이 제시되고 있다고 논했다.

고이즈미 고이치로가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친의 천황에 대한 감정은 당시 메이지 시대에 천황과 국민의 관계를 권력 지배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친애에 의한 결합으로 천황에 대한 존경심을 국민 도덕의 기본으로 삼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내셔널리즘과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는 천황에 대한 존경심, 일체감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천황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접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접점을 밝힌다는 것은 당시 메이지 시대의 국민의식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 노기 대장의 충격

메이지 천황은 신생 일본에 있어 제도상의 최고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향해 돌진

하던 에너지의 정신적 대지주였다. 메이지 천황과 더불어 근대 국가가 탄생했고, 이 시대에

극동의 소국 일본이 열강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부국강병·식산흥업 그리고 탈아입구(脫

亞入歐)라는 대 목표를 착착 실현해가면서 당시 메이지 천황이라는 존재는 국민에게 점차 신[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51)격화 되어갔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군대의 근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마침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이후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여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옛 막부(幕府)시대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신분제도는 그 모습을 바꾸어 군인들이 위세를 떨치는 세상이 되었다. 식산흥업[殖産興業]: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킴.

탈아입구(脫亞入歐)는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는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1885년 3월 16일자 일본 신문 시사신보(時事新報)에 〈탈아론(脫亞論)〉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 1849.11.1~1912.9.13)에도[江戸]출생. 1866년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가 조직한 기병대에 가담하여 바쿠후군[幕府軍]과 싸웠다. 청일전쟁 때에는 여단장으로 출전하였으며, 이어서 육군중장이 되어 대만총독을 역임하였다. 러일전쟁 때는 대장으로 승진, 제3군사령관으로 뤼순[旅順]을 공략하였다. 1877년 2월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가 학생들과 함께 규슈(九州)의 구마모토(熊本)일대에서 일으켰던 반란전쟁을 서남전쟁(西南戰爭)으로 부르고 있다. 이 전쟁 때에 노기 마레스케는 제14연대장으로 구마모토에 출병했다. 그러나 서남전쟁에서 그의 부하였던 기수(旗手)가 적진 속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군기를 반란군에게 탈취 당하고 말았다. 노기 마레스케는 반란군에게 군기를 탈취 당한 책임을 지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부하의 만류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35년 동안 죽을 기회를 기다리다가 메이지 천황[明治天皇]무쓰히토가 죽자 자택에서 처와 함께 할복자살했다.

서구 문명이 정착하고 칼 대신 총과 대포가 발달한 근·현대에도 여전히 칼로 자결하는 할복자는 생겨났다. 그 수가 이전의 시대보다 많지는 않지만 천황이 죽었거나, 전쟁에 패했을 때,또 사회 개혁을 위하여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을 때 할복자들이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노기 마레스케는 할복과 관련하여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노기는 조슈(長州)출신이면서 사쓰마(薩摩)무사의 딸 시즈코를 아내로 맞이했다. 유신 전후부터 골이 패이기 시작한 사쓰마와 조슈 사이를 화해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핏자국이 선명한 노기 저택의 2층 방안.처형(妻兄)등 네 사람이 와인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마친 뒤,노기 부부는 2층으로 올라가 자결했다. 시모노세키(下関)의 죠카마치(城下村)에는 여러 개의 신사 중 노기신사(乃木神社)라는 곳이 있다. 일본에서 군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를 모신 신사이다. 신사 안에는 노기대장의 동상과 그가 살던 집,그가 쓰던 일용품과 편지,글씨,사진 등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일본인들 사이에 노기대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는 곳이다.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육군 대장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죽은 뒤,같은 해 9월 13일 천황의 장례식 날 오후 8시 전에 자신의 자택에서 부인인 시즈코(静子)와 함께 순사를 한다.

노기 마레스케 대장은 구식으로 죽기는 했어도 소세키가 살았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노기는 1877년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의 무사들의 사쓰마(薩摩)반란에 맞서 싸운 전장에서 정부군을 지휘하면서 연대 깃발을 잃자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 자살을 생각했다.물론 그는 그때 죽지 않고 청일전쟁에서도 싸웠으며,러일전쟁에서 전설적인 영웅으로 기억되기에 이른다. 러일전쟁은 일종의 제1차 세계대전의 리허설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충돌에서 보였던 용감한 나팔수들과 화려한 현수막이 사라졌다. 이때는 두 거대 군대가 철망을 친 참호에서 서로를 학살했다.이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의 일본인과 러시아인들이 유례없는 잔혹함의 극치를 보인 전투에서 사망했다.

뤼순 전투에서 노기 마레스케 대장의 군대에는 13만 명 중 5만 8천명의사상자가 전사하는 고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는 퇴역 후에도 많은 부하를 죽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아들도 있었다. 그는 러일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의 목적을 버리지는 않았다.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는 천황을 위해 죽는 영예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그는 애국심에서 그런 식으로 말했으나, 한편으로는 아들을 잃은 데 대한 죄의식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기도 했다.

천황 장례식 날 노기 대장은 후지산(富士山)과일본이 천황을 위해 죽은 영웅들을 기념하며 통합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짧은 시를 썼다.그의 아내는 검은 기모노로 갈아입고 노기는 하얀 내의 차림이었다. 노기 대장은 두 아들과 천황의 초상화에 절을 하고 아내의 목에 단검을 찔러 먼저 죽게 한 다음 할복함으로써 무사의 예에 따라 죽었다.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1828년 1월 23일~1877년 9월 24일)일본의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의 정치가이자 무사이다. 일본 가고시마 현 (사쓰마 번)에서 하급무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었으며 정한론(한국정벌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1877년 사쓰마 번의 무사들의 반란인 세이난 전쟁의 패배후 자결하였다.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그의 기념상이 있다.

그의 할복은 메이지 천황이 자신이 죽거든 죽어라 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육군의 허락을 받고 순사하는 근세 무사의 할복과 같다. 그러나 가이샤쿠닌(介錯人, 할복하는 사람의 목을 치는 사람)이라는 보조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중세 할복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존했던 노기 대장의 아들을 잃은 데 대한 죄의식과 소세키가 작품에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선생의 친구가 젊은 나이로 자살할 때 자신이 돕지 못했다는 죄의식에서 비롯되었으나 노기 대장과 선생이 받아들인 충격에 의한 자살의 의미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기 대장 부부의 자살은 당시 일본 대중들에게 순사(殉死)라는 사건으로 인해 찬반양론이 뒤섞이는 혼란을 초래했다.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에 의해 순사가 금지된 이래 약 250년이 흐른 시점에 노기 대장 순사 행위는 시대착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메이지 천황을 따라 할복자살을 한 노기 대장의 행동에 감동했고, 메이지 천황에 대한 지극한 충성으로 일관한 숭고한 행위로 보고 크게 칭찬했다.

그 리하여 노기 대장에게는 죽음의 대가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다. 그 예로써 도쿄에 있는 노기의 저택에는 그를 신으로 모시는 노기 신사(乃木神社)가 건립되었으며, 그 때 황실로부터도 거금 5천 엔이 기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도 노기 신사가 생겨났다. 심지어 자신의 집 안에 노기신사를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노기는 죽어서 일본인들로부터 숭상받는 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근세의 무사들이 받았던 보상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데 반하여, 노기의 순사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기 대장의 순사는 명치인(明治人)으로 살아온 소세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작가에게 끼친 영향은 메이지 시대가 끝난 2년 후 쓴 마음 (1914)에서 당시 명치인들이 느끼는 충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천황이 죽는다고 육군 대장이 천황을 따라 죽으라는 규정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노기 대장이 죄책감을 느껴 자살을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했어도 되는데 부인인 시즈코(静子)와 함께 할복자살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더욱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노기 대장이 메이지 천황을 따라 순사한다는 자살 형태는 메이지 시대에 독특한 일본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포함한 일본의 특수한 문화가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기 마레스케가 행한 할복자살은 무사(武士)가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 방식으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이후 시작되었다.

에도 시대(江戸時代)에 들어와서는 무사들의 사형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은 머리나 가슴에도 갇히고 있지만 진짜혼(魂)은 뱃속에 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살자가 칼로 배를 가르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죽는 것은 아니다. 숨이 끊길 때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할복의 실패를 막고 참혹한 고통을 빨리 없애기 위해 자살자가 칼로 배를 찌를 때, 또는 칼로 배를 갈라 창자가 튀어나올 때 옆에서 가이샤쿠닌 역할을 맡은 사람이 칼로 자살자의 목을 쳐 머리를 떨어뜨려 준다.

소세키는 노기 대장이 무사 정신으로 메이지 천황에 대한 굳은 신념과 도덕성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며, 노기 대장의 순사로 인해 당시 육해군의 통수권은 천황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천황에 대한 충성스런 충효 일치와 충군 애국은 국가 최고 가치이자 절대적 기준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선생의 충격

선생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해 메이지 시대정신이 메이지 천황과 함께 끝났다는 생각을 한다.가장 강하게 메이지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선생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 있는 건 시대착오라는 느낌마저 받는다.

선생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천황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선생은 순사라고 하는 말을 거의 잊고 지낸 것을 느끼게 된다.이후 순사라는 말을 꺼낸 선생에게 아내 시즈는 그럼 순사라도 하면 어때요?라고 놀리듯 말했다.선생은 아내에게 만약 내가 순사를 한다면 메이지 정신에 순사할 생각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생과 메이지 정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지숙은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시즈가 어떤 의도에서 순사라는 말을 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노기의 순사가 선생이 자살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K가 자살한 이후부터 자신의 죄에 고통을 느끼며 살던 선생이 천황의 죽음을 따른다는 대의를 발견하고 자살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즉 선생이 메이지 정신에 순사한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선생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과거를 응시해 자신의 죄를 보상할 시기를 맞이했다고 보여진다고 논했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노기 대장 순사에 충격을 받은 선생은 노기 대장이 서남전쟁 때 적에게 깃발을 빼앗긴 이래, 속죄하기 위해 죽어야지, 죽어야지하면서 오늘날까지 연명해왔다는 신문 구절을 읽으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세어 노기 대장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온 시간을 따져본다. 노기 대장은 35년 동안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 죽을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가 살아있던 35년이 괴로웠을지,아니면 칼로 배를 찌르는 일순간이 괴로웠을지를 선생은 생각해 본다. 선생은 노기 대장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그가 서남전쟁 때 적에게 깃발을 빼앗긴 후,순사하기 전까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기 대장이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해 충격을 받아 자신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 죽을 기회를 기다려 순사한 것과 선생이 자신의 아집 때문에 친구 K가 자살한 데에 대한 죄의식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중 천황의 죽음으로 인해 동기부여를 받아 자살한 것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선생의 자살은 절친한 친구 K의 자살로 인한 죄의식이 발발된 것이며,메이지 천황의 죽음 이전부터 선생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선생이 죽음을 이미 예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아래의 텍스트에서처럼 나와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다.

“인간은 건강하든 병이 들든 어쨌거나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일로 어떻게 죽을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중략)앗 하는 순간 죽는 사람도 있지요.자 연의 이치를 거역한 부자연스러운 폭력으로.(중략)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폭력을 사용한 것이겠죠.”

이렇게 나와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생은 자주 죽음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선생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노기 대장이 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자신 또한 순사(殉死)라는 형태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즉,자신의 이기심과 그로 인한 죄책감이 드리워진 어두운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탈출하고자 한 것이다. 단지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자신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생은 아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노기 대장처럼 아내와 함께 죽을 용기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사랑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고 하는 죄의식이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갔고 그러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괴로움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노기 대장이 순사를 하게 되고 메이지 시대를 살아온 선생 역시 국가와 개인을 일체화하는 특권적인 모티브로 다뤄지면서도 선생에게 있어서 천황의 죽음과 노기 대장의 순사는 선생에게 자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동기부여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이 친구 K의 죽음을 통해 느낀 불안과 초조는 K의 묘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부인 시즈에게 속내를 밝히지 못하며 고민한다. K의 죽음에 대한 선생의 죄의식에 사로잡힌 고통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하지(恥), 즉 수치문화와 남들에 대한 체면문화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일본인 특유의 수치심을 생각하는 수치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그녀의 대표적인 저서 국화와 칼 에서 일본의 문화는 전형적인 하지(恥) 즉 수치심을 생각하는 문화라고 결론지었다. 그녀의 하지(恥)의 문화이론은 일본인의 대인관계를 둘러싼 여러 모습들을 너무 단순화시킨 면은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일본인의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하지(恥)문화의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 조소, 반대 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세우고 있어서 자신의 나쁜 행위가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켄테이(世間體)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시하는 일본인의 정신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하지(恥)의 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은 죄를 범하는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파악했다.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즉 타인을 의식하는 행위와 사고가 세켄테이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심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세켄테이의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선악의 판단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無價値)함이 남들 앞에 탄로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

수치 문화 :수치는 어떤 비교기준에 기인하는 열등의 관념이며, 또 그와 같은 열등의식이 주위의 다른 사람 앞에 노출되었을 때의 감정이기도 하다. 집단에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행동은 남들로부터 비난을 사게 되므로, 집단 성원은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그 래서 집단은 수치의 감정을 이용하여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이런 통제방법이 일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를

가리켜 수치의 문화라고 규정했다. 일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 내에서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주위와 항상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여 남들에게 두드러지기보다는 남의 생각에 동조하여 평균화하고자 힘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남의 비평에 항상 신경을 쓴다. 남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무언가 거부되었을 때, 특히 그것이 남 앞이었을 때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일본인 특유의 체면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작품 속 선생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첫째, 하숙집 주인 딸 시즈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표현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점과 어느 순간 친구 K의 시즈에 대한 고백을 듣고도 사모님에게 계속 결혼 이야기를 미루면서 질투심만 키워가는 것은 선생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루스 베네딕트는 그의 저서 국화와 칼 에서 일본인은 치욕감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사회가 근대화되더라도 수치를 원동력으로 하는 일본인의 의식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선생은 K에게 나는 인간답다 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을 사용하며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K에게 털어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선생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학문적인 교류를 기초로 쌓아온 K와의 끈끈한 우정을 시즈라는 한 여자를 두고 그 자리에서 깰 만큼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꿈해 있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선생의 행동과 시즈를 사랑하면서 친구 K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일본인 특유의 수치문화· 체면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K의 자살 이후 선생은 살아있는 한, 매달 K의 묘 앞에 무릎 꿇고 늘 같은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 제대로 살피주지 못한 K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내 시즈가 살아가는 동안 한 점의 티끌도 남기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며 생활해온 선생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시즈에게 친구 K의 자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즈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닌 배려에서 출발했다는 일본인 특유의 수치 문화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선생은 친구 K가 자신의 아집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살했을 것이라는 죄책감으로 시즈와 결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해 온 것은 지극히 일본인 특유의 수치 문화와 남들에 대한 체면 문화구조에 기인했다고 보여 진다. 즉 아내에게만큼은 친구 K와의 관계에 의한 과거의 모든 것을 밝힐 용기도 없을 만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 모든 과거를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에 대한 기억을 가능한 한 순백으로 간직하도록 아내에게 밝히지 말아달라는 유서 내용을 통해 일본인의 철저한 남들에 대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해 선생의 충격은 부친과 노기 대장의 충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인 특유의 수치 문화와 남들에 대한 체면 문화에 기인하여 초래된 자살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선생은 자신의 아집과 이기심으로 인해 K가 자살한 행위 그 자체보다도 K의 자살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즉 타인을 의식하는 행위와 사고(思考)로 죄책감을 더욱 크게 느낀 것이다. 이는 선생의 소심한 성격에서 비롯된 고통의 나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초기 증상과 같은 현상을 겪으면서 자신의 죽음의 동기를 찾던 중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통감하였으며, 얼마 후 노기 대장의 순사를 계기로 자살을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렇게 선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아사다 류(淺田隆)는 선생의 고립된 자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는 선생의 태도에서 나타난 절대적인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의 문제가 바로 닫혀진 자아의 소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절대 논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적인 타자와의 교섭 속에서의 자기의 논리 규범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논리를 강변하려고 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다르게 우울하고 슬픈 감정과 의욕저하,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우울한 기분 및 감정이 주 증상이며 그로 인한 수면,식욕,흥미의 저하와 불안,자살생각,무기력감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

소세키는 마음 을 통해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제시하여, 당시 국민에게 안겨주었던 비극적 감명을 부친이 받은 충격을 통해 자세하게 표현했다. 부친은 메이지 천황을 천자님으로 부르고 있다.그냥 천황으로 불러도 될 것을 부친은 천자님으로 부르면서, 천황이 죽으니까 자신도 따라 죽으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친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절실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쓰메 소세키가 작품을 통해 창조해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메이지 시대 당시 천황은 총사령관이 되어 군사행진,군사연습,열병식,열함(閱艦)식에 참석하였다. 황족들도 정기적으로 군사직을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 및 해군 참모 총장은 당연히 육군성과 해군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모든 지휘권 관련 문제에 관해서 천황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군인들이 위세를 떨쳤던 시대였던 만큼 노기 마레스케는 일반 군인이 아닌 대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남달랐을 것이다. 이는 서남전쟁(1877)에서 반란군에게 깃발을 빼앗긴 후, 속죄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중 메이지 천황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부인 시즈코와 함께 할복자살한다. 노기 마레스케 부부의 자살은 당시 신격화된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한 일본 육군 장군들이 느꼈던 충격의 일면을 작품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의 자살과 노기 마레스케 대장이 행한 순사는 죽음을 결심하고 죽을 기회를 살피면서 오랜 시간을 괴롭게 보냈던 것과,이미 머릿속에 예정되어 있었던 죽음을 순사라는 형태로 명분 짓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하지만 메이지 천황에 대한 충성이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우월했던 노기 마레스케 대장은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된다.이와는 달리 선생의 자살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아집과 이기심으로 인해 친구가 자살한 데에 대한 불안감과 죄악,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하지(恥),즉 수치문화와 남들에 대한 체면(世間體)문화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해 느꼈던 부친의 충격과 노기 마레스케 대장의 충격,선생의 충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가 작품 속에 묘사한 메이지 천황의 죽음의 충격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서로 접촉하고 또는 폐를 끼치면서 상호 동질성을 심화해 가는 인정(人情)의 문화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일본은 서로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긴장의 문화, 자신의 나쁜 행위가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치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 구조를 무시하고 소세키가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미화하여 그려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한것에서 오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셋째,메이지 시대 말 경에 도련님의 주인공 붓짱이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시코쿠 지방에 있는 중학교에 수학 교사로 취직을 하여 40엔이라고 하는급료를 받은 것은 파격적인 대우였다. 일본의 근대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급료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났던 시대였다. 메이지 정부가 인정하는 제국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급료를 많이 받고 고급 관리와 관리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학교나 중학교를 나온 사람은 제국대학 출신보다 취업 기회와 급료에서 차별을 받았다. 메이지 정부는 학벌에 의한

급료의 차이,신분의 벽을 만들어 제국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열등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 근대의 독특한 학벌이라는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시대에 붓짱이 제국대학 출신인 아카셔츠를 강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임하고 충돌하려 했던 것은 필연적으로 좌절과 패배를 맞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근대국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입헌군주제에 기초한 천황에 대한 복종심을 국민에게 강제했다.따라서국민들은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다했다.그러므로 작품 마음에서 메이지 천황 죽음에 대해 부친이 받은 충격은 당시 국민들이 느꼈을비통함이 부친을 통해 투영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한편 당시 실존했던 인물이기도 한 노기 육군 대장은 일반 군인이 아닌 대장이었다는 점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 패한 것을 메이지 천황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여겨 부인인 시즈코와 함께 할복자살을 선택했다. 이것은 당시 무사도 정신이 반영된메이지 천황에 대한 인식이 비추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군인은 입헌군주제로 인한 주종 관계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국가군주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군인의 본분은 오로지 충절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육군은 치안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기에 독립성과 충성심을보장할 수 있도록 황실과의 특별한 관계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천황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군인은 독특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그 지위로 인해 천황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마음 의 주인공 선생의 자살의 원인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대한 충격보다는 일본인 특유의 문화구조 중에서 수치(恥)문화와 체면(世間體)문화에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즉,선생은 자신의 아집 때문에 친구 K가 자살한 데에 대해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메이지 천황의죽음과 노기 대장의 자살은 선생에게 죽음의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그렇다 면 선생이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노기 대장의 자살 소식을 듣고 죽으려고 결심한 것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수치문화와 남들에 대한 체면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개인주의 사상

게오르그 짐멜은 근대적 개인과 관련하여 개인주의의 두 형식을 설명한 바 있다. 전근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구속과 의무로부터 해방된 개인을 추구하되 보편적인 유(類)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의 개인주의를양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교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에 기초한 개인주의를 질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짐멜은 설명한다. 짐멜의 이와 같은 관점은 연역적 ‘근대’가 아니라 구체적 문학작품 속에서 구체적 인물을 통해 현상하는 변별적 ‘근대’를 사유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보편적 개인’으로 주체화하는 대신 구체체의 가치에 침윤되었으나 그 사실을 인지한예외적 개인으로 인식했다. “아이들을 구원하라”는 광인의 전언은 양적 개인에 도달한 ‘보편적 주체’의 구호가 아니라 그것의 조건으로서의 보편적 자유에 미만한 상태의 단말마적 비명과 같은 것이다. 이는 광인이 저 전언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는 ‘인의도덕(仁義道德)’의 세계로 귀환했다는-완치되었다는-사실로부터 더욱 자명해진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양적 개인이나 질적 개인이 도래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의 자유를 문제 삼는



소설이다.

1914년 4월부터 8월까지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음에는 5개의 죽음과 하나의 남겨진 삶이 다루어진다. 즉, 이 소설은 화자인 ‘나’가 자신의 삶의 향배를 두고 저 죽음의 갈래들을 응시하는 소설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작중 화자인 ‘나’에게 있어, 구시대의 종언이 개인의 삶에 직접 편입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의 죽음은 한 시대의 가치의 소진과 결부된 것이다. 이처럼 5개의 죽음은 전근대적 주체, 양적 개인, 질적 개인이라는 목적지 사이의 선택지들을 의미한다. 그 모든 선택지의 뒷편에서 이제 ‘나’는 어떤 ‘자기본위’의 가치 체계를 삶의 형식으로 삼을 것인가? 주지하듯 마음에 ‘나’의 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마음은 향후 향배에 대한 방법적 질문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브뤼노 라투르는 근대 세계가 비가역적 발명품이지만 실제로는 “실천들의 작은 연장, 지식의 순환에 있어서의 약간의 가속, 사회들의 조그만 확장, 행위자들의 수의 미미한 증가, 과거의 믿음에 대한 약간의 변형 이상의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브뤼노 라투르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흥미로운 명제를 제출하고 있다. 요컨대 ‘근대’란 함의되기 어려운 개념일뿐더러 가장 이상적인 방식의 현실태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연역의 준거를 마련하여 순분증명(純分證明)하듯 근대를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조금 더 일물일언(一物一言)의 태도로, ‘실감과 정동(affect)으로서의 동아시아 근대’에 대한 관찰이 요청되는 까닭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 초입의 문학작품을 ‘과거의 믿음에 대한 작은 변형’, ‘구체적 실천들’, 실천을 담지하는 개인들에 주목해서 다시 읽어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게오르그 짐멜은 근대적 개인과 관련하여 개인주의의 두 형식을 설명한 바 있다. 짐멜은 근대가 추구한 보편적인 인간은 오직 개인으로 등장한다고 전제하며 이 개인을 “중세에서 살아남은 모든 규범과 정반대로 자립적이고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의 근대적 개인과 관련된 두 가지 형식의 개인주의를 대별시킨다. 우선 “인간을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본래적인 자아의 토대 위에 정립하는, 그러나 이 자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자아로 해석하는 개인주의”가 있다. 짐멜은 이를 ‘양적 개인주의’로 규정한다. 반면, 이와는 다른 방식의 개인주의가 존재한다.

“인간적인 것의 차이 역시도덕적 요구라는 점,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은 이상형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이는 모든 가치를 자유로운 자아의 형식에 설정한 개인주의에 비하면 전혀 새로운 가치평가이다. 그것은 질적 개인주의이다”라고 짐멜은 설명한다.

이를 조금 더 부연해보자면, ‘자아가 실현시켜야 하는 가치의 내용적 평준화’ 유무를 기준으로 “사회적 요소들의 평등과 동등한 권리에서 이상을 찾는 개인주의와, 이들 사이의 차이에서 인류의 전체적 의미를 찾는 다른 개인주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전자에 해당하는 양적 개인주의의 형식에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일반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 법칙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질적 개인주의가 존립하는 토대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가치와 이상이다.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구속과 의무로부터 해방된 개인을 추구하되 보편적인 유(類)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의 개인주의를 양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교환될수 없는 고유한 가치에 기초한 개인주의를 질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짐멜의 이와 같은 관점은 연역적 ‘근대’가 아니라 구체적 문학작품 속에서 구체적 인물을 통해 현상하는 변별적 ‘근대’를 사유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근대와 ‘개인의 탄생’을 등가로 놓는 맥락을 조금 더 공교화할 필요성 역시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개인주의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동아시아의 개인주의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연역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세분하여 귀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꾸준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앞서 짐멜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대로의 ‘질적 개인주의’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보편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된다. 따라서 이때의 개인주의는 실은 근대 초입에 경쟁하는 다기한 윤리적 이념들의 자기 전개 과정과도 관계된다. 개별적 맥락 속에서의 선택을 특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에 제시된 특수상황과 그 속에서의 선택지들을 새삼 눈여겨보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1914년 4월부터 8월까지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의 마음<sup>ㄸ</sup>에는 5개의 죽음과 하나의 남겨진 삶이 다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5개의 메시지(혹은 답신)와 하나의 질문이 엮이며 산출되는 선택의 갈래들이 소설의 중심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 노기장군의 순사, 화자인 ‘나’의 아버지의 죽음, 선생님의 유서에 등장하는 K의 죽음, 그리고 선생님의 죽음 등, 이 5개의 죽음이 길지 않은 소설 속에 마치 이정표처럼 공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죽음이 이정표처럼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지독한 역설이 될 것이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 소설은 틀림없이 화자인 ‘나’가 자신의 삶의 향배를 두고 저 죽음의 갈래들을 응시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가 이렇게 정식화된 데에는 나쓰메 소세키 특유의 문학론이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나쓰메 소세키는 문학론<sup>ㄸ</sup>에서 문학을 ‘F+f’, 즉 초점적 인상 혹은 인식적 요소(F)와 정서적 요소(f)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 메이지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독창적으로 체현한 작가로 평가받는 소세키에게 이 두 요소의 결합이란 결국 근대문학의 사상내용과 생활세계가 중첩되어 초점화되는 양상을 지시한다고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마음<sup>ㄸ</sup>에서 5개의 죽음과 하나의 남겨진 삶이 근대적 삶의 양식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답지와 남겨진 하나의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바로 이 5지선다형 문제에 골몰하기 전에 먼저 나쓰메 소세키의 출제 의도를 조금 더 헤아려 보자.

고백하자면 나는 그 네 자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남의 꿈무늬만 쫓아 허풍을 떠는 것은 대단히 염려되는 상황이므로, 그렇게 서양인 흉내를 내지 않아도 좋은 확고부동한 이유를 그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하면 나 자신도 유쾌하고 남도 기뻐하리라고 생각해 저서나 그외의 수단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 생애의 사업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이 언급에 뒤이어

“귀국 후 3년 반의 시간도 불유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나는 일본의

신민(臣民)이다. 불유쾌 하기때문에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의 신민이라는 영광과 권리를 가진 나는 5천만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적어도 5천만 분의 1 하로 줄어들었을 때, 나는 내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본국을 떠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5천만 분의 1로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중략) 내 의지 이상의 의지는 나에게 명령해서 일본 신민됨의 영광과 권리를 유지하고지탱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유쾌함도 피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 불안과 의지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소세키는 네 글자를 제시하는데 주지하듯 그 네 글자란 바로 ‘자기분위’이다. 저 불안은 사적으로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국에 유학한 메이지 시대 지식인의 실존적 고뇌에서 오는 것이며 정신사적으로는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100년전부터 들려오는 저주의 목소리와 거짓 닭울음 소리, 그리고 방향을 모르고 떠밀려 가는 배의 이미지는 런던 한복판에 선 젊은 영문학도의 실존적 불안과 결부되면서 전통세계와 근대, 그리고 메이지 정신이라는 이념형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낙차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 속에서 소세키가 발견한 네 글자, ‘자기분위’라는 네글자가 붙여넣는 의지란 무엇일까? “서양인인척 하지 않아도 좋을 확고한 이유를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내놓는다면…”이라고 말하는 ‘메이지의 신민’에게 ‘5천만 분의 1’의 정량값이 허용하는 표준편차는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것일까? 다시 5지선다형 문항 앞에 서보자. 신분적 자유에 따른 자기결정권, 문물과제도의 차원에서 설명되는 박래의 서구적 근대, 몽십야에서 저주의 목소리로표상된 전통적 가치의 세계 등을 저 질문의 한쪽에 놓인 함수값들이라고 할 때, 그에 대응하는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새로운 세계에서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과 선택의 논리 즉, 새로운 세계에서 윤리적 조건은 무엇인가?이제 선택지를 검토해보자. 메이지 ‘천황’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근본조건을 부여한다. 노기 장군의 ‘순사’는 그 조건에 개인을 투사하는 방식의 선택지를 의미한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노기 장군은 1877년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으킨 반란에서 반란군에게 군기를 빼앗긴 순간에 이미 죽음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35년이나 지연된 생물학적 죽음을 ‘선생님’이 ‘순사’(殉死)라고 규정한 것은 메이지의 물리적 생이 잔존하는 동안 죽음조차 결단할 수 없는 상태로 결착된 한 삶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개인의 근본 조건은 자유다. 설령 시대의 가치를 담지하는 보편적 개인으로서의 양적 개인주의에서와 표면상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이의 도착(倒錯)에 개인은 없다.

‘선생님’의 죽음 역시 표면적으로는 노기의 죽음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메이지시대의 종언과 함께 자연적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연은 노기의 지연과는 양상이 다르다. 노기의 지연이 전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개인의 탄생’에 대하여 수치와 동일화에 기반한 것이라면 선생님의 죽음은 차이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전근대적 도착과 근대적 방식의 양적 개인주의 사이의 넓은 지대를 전경화한다.

선생님의 죽음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때를 같이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은 K의 죽음에 의해 예비되었다가 ‘나’의 등장과 더불어 개시되고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더불어 종결된다. 깃발을 빼앗기면서 시작되는 죽음과 개인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수치’로부터 비롯된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자만이 개인의죽음이기 때문이다. K는, ‘선생님’의

유서에 담긴 표현을 빌리자면 ‘이해타산’ 즉, 사랑을 위해 친구를 속이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때문에 죽음을 맞는다. 그의 죽음은 절대나 보편이 아니라 수치를 삶을 중단시키는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당대의 모럴과 관련된 것이되, 그렇기때문에 차별화된 질적 개체로서의 죽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K의 자살로부터 촉발된 또하나의 ‘수치’는 당대의 모럴을 문제 삼는 개인의 것이다. K의 무덤에 계속참배함으로써 죽음을 지연시키는 ‘선생님’에게 새로운 세대의 삶의 가치를 묻는 ‘나’의 등장은 억압되었던 것을 소환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선생님’의 죽음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느슨하게, 그러나 ‘수치’를 죽음의 근거로 삼는 당대의 모럴에 단단하게, 그리고 시대의 전환과 관련된 내면적 가치의 소진에 결정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의 죽음은 메이지 시대의 양적 개인주의가 어떤 형국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지금 그 요구를 다 이루었네.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이 적시하듯 ‘선생님’의 죽음은 가치의 탕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은 ‘나’의 선택은? 아버지의 죽음이 작중 화자인 ‘나’에게 있어, 구시대의 종언이 개인의 삶에 직접 편입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의 죽음은 한 시대의 가치의 소진과 결부된 것이다. 그 모든 선택지의 뒷편에서 이제 ‘나’는 어떤 ‘자기분위’의 가치 체계를 삶의 형식으로 삼을 것인가?

주지하듯 마음<sup>ㄸ</sup>에 ‘나’의 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마음<sup>ㄸ</sup>은 향후 향배에 대한 방법적 질문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아마도 K의 죽음이 질적 개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1948년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서의 요조의 죽음과의 대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질문은 1948년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인간실격<sup>ㄸ</sup>에서 ‘세상이란 곧 개인이 아닐까’라고 적시된 요조의 발신이 도래하기까지 그사이에서 오래 탐구될 과제가 된다. 에 일격을 가하면서 자유의 당위를 드높이는 것이 루쉰의 「광인일기」라면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자기분위’의 향배를 묻는 것이 소세키의 마음<sup>ㄸ</sup>이라고 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자기분위’는 루쉰에게는 요원한 것으로, 마음<sup>ㄸ</sup>에서의 ‘자기분위’란 방향이지 내용을 갖춘 행동규약이 아니다. 질적 개인주의를 다시 문제삼자면, 자기분위의 빼곡한 갈래들이 귀납적으로 세세히 검토되지 않고서는 아직은 그 귀결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의 ‘자기분위’는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여정에서는 도착지일 수 있으나 근대와 개인주의의 관계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는 출발점인 셈이다.

나쓰메 소세키의 ‘자기분위’라는 이정표는 단계론적 관계가 아니라 경향적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 살펴본 브뤼노 라투르의 말마따나 전근대와 근대가 비가역적이고 선형적인 관계선상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삼투와 농도 차원의 경향적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개인주의의 여러 양상들 역시 단계적이라기보다는 경향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과 방법 그리고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도착지 역시 제각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척도를 ‘개인의 탄생’이라는 명제로 일원화하는 대신 이 문제를 양적 개인주의와 질적 개인주의의 1914년에 발표된 마음<sup>ㄸ</sup>으로부터 1948년의 인간실격(太宰治, 다자이 오사무)에 이르는 희미한 선을 상정해볼 수 있으나 이는 현재 본고의 초점과 권한 밖에 놓여 있다. 다시 동아시아에서의 ‘개인의 탄생’에 대하여 다양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재고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후의 문학사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있음을 부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줄이고자 한다.

## 소세키의 병

소세키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위궤양이다. 위궤양은 “과다신경성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sup>7)</sup>이 있는데 소세키 생애를 통해 살펴보면 소세키의 죽음의 원인인 위궤양은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소세키의 생애가 낳은 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양아들과 양자 체험, 소세키가 만주와 한국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동기를 만들게 했던 양부 시오바라 마사노스케(塩原昌之助)의 엄치없는 금전 요구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위궤양에 걸렸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약 2년간의 영국 유학시절이다. 당시 외국인으로서의 연구에 대한 한계, 부족한 유학비, 문학론 집필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소화불량은 위(胃)가 쇠약해지는 원인을 충분히 제공했을 것이다.

우선, 수양아들과 양자 체험, 양부 시오바라 마사노스케의 금전 요구, 영국유학 시절 불규칙한 식사, 집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유학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위궤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걸린 위궤양은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작품 만한 이곳저곳 을 통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신과 결부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정했던 대로 만주로 출발할 수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져서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신의 의지대로 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일들 에서 ‘나’는 소세키와 동일시 읽을 수밖에 없는데, 병을 앓고 나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작품 속에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제목처럼 생각나는 일들 은 평범한 개인의 병상일기에 불과하다. 영국 유학을 끝내고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쌀밥을 보았을 때와 같이 그 행복감은 일상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소세키 자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동안에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들,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죽음이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동시에 자신을 간호해 준 아내나 의사, 간호사, 젊은 제자들, 심지어 병문안을 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소세키에게 감사함이라는 마음은 결국 가장 인간다운 마음으로, 건강할 때는 그것을 감추고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리문 안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있는 여인의 참담한 상황을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죽음보다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세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권한다. 즉,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더라도 그 고통을 자연의 일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각오와 결의에 의해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체험이 곧 소재가된 만한 이곳저곳 , 생각나는 일들 , 유리문 안에서 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의 나약함에 통감한다. 이는 결국 깊은 내면에 대한 성찰과 죽음에 대한 응시를 통해서 우리자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끔 하는 동시에 소세키의 삶에 대한 애착, 나아가 죽음을 자연의 이치 그대로 의연히 수용하고 있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소세키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문학교 시절인 소년시절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소년시절부터 사서오경을 비롯해서 불교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만년까지 그 맥을 잇고 있으며 불교는 그가 쓴 수많은 문장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는 다량의 불교관련의 불교어 불교사상 불교문화 등 제반의 관련어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소설을 비롯해서 한시 일기등 불교적 영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한다.

### 소세키와 불교

작품 속에서 문학은 인생의 모든 것 그 인생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해탈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근대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자신의 불교적 사상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그것을 매개로 하여 불교의 세계와 그 진리를 시사함으로써 참된 인생의 길을 깨달아야 함을 주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소세키는 자신의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문학적 개념과 사상적 개념을 나타내면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의 禪的인 면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표현하고 그 본체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拙著에서 이미 논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動과 靜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정리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動과 靜은 대부분 인간의 마음(心)이라고 하는 경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분별심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내재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 그 포착할 수 없는 眞心 즉 마음의 본체를 찾는 과정에서 생멸하는 가지각색의 양상을 찰나에 인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문제로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소세키는 움직이고(動)있는 자신의 마음이 변화해 가는 것을 靜의 境地에서 관조할 수 있어야 하고 動의 세계속에서 靜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는 수행의 하나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 에고이즘

주인공 선생의 에고이즘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세키가 나타내고자 한 인간상이 나타나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마음』의 주인공 선생을 통해 에고이즘 분출에 의한 욕망은 고독하고 불안한 인간상이 나타나 있다. 선생의 인간에 대한 불신은 인간이 지닌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는 에고이즘적인 성격에서 기인한다. 선생은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고통스러워한다.

선생은 숙부에게 배신당한 뒤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 타인에 대해 헤어날 길 없는 불신에 빠져든 이후, 어떤 사람의 호의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부인 시즈 마저 의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결국 K의 자살을 통해 에고이즘을 깨닫고 자기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선생은 비로소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고독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이 장면은 살아있는 자는 에고이즘의 늪에서 끝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선생의 심리를 통해, 자기의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K의 개성을 말살하고 자기 내면생활의 울타리 안으로 강력히 그를 끌어들이려고 한 선생을 목격함으로써 에고이즘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모두 에고이즘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주인공 선생을 그 대변자로 소세키는 그리고 있는 것이다.

숙부로 인한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저버렸는데도 시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친구K와의 심리갈등을 하는 선생을 통한 심리묘사는 결국 에고이즘 분출에 의한 고독하고 불안한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선생은 자신 때문에 K가 자살했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라도 받을수 있는 보상심리가 작용한 인간의 합리화적인 에고이즘이 나타나 있다. K가 자살한 뒤 선생은 부끄러움으로 인해 사회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감내해야 할 쓸쓸함을 하늘이 내린 벌로 받아들였다. 장모를 극진히 병간호했던 점, 장모가 병으로 죽은 후 아내에게 가능한 한 다정하게 대하려고 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고나면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있는 힘껏 장모님을 간호한 것은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할 수 있네. 세상을 등진 내가 비로소 내 손을 내밀어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선

행을 했다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네. 나는 그 행위로 얼마간 면죄를 받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거야.(중략) 나는 가능한 한 아내한테 다정하게 대했네.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네. 나의 그런 자살한 행동에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좀 더 넓은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하네. 내가 장모님을 정성껏 간호할 때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 행동한 건 아닐까.”

숙부로부터 얻은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은 지극히 자의적(恣意的) 해석이며 언제든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모순된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의 비극은 작품 전반부부터 모든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에고이즘 분출에 의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에서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은 시시각각 변하는 모순투성이로 보았다. 이러한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 성격의 본질을 에고이즘 분출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마음』에는 주인공들이 내면을 숨긴 채 타인을 상대하면서 자신들의 인간의 에고이즘을 분출한 욕망 이 드러나는 유사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고이즘은 라틴어로 ‘나’라는 뜻의 에고(ego)에서 유래된 말이다. 에고이즘은 국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이기주의로 정의 내린다. 에고이즘은 선이 자기 이익의 추구에 바탕을 두는 윤리학에서 자기의 쾌락을 증진시킴을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기적 쾌락주의, 자애주의.

자아주의↔에타주의, 이타주의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는 각자가 자신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세기의 유물론자 토머스 홉스와 합리론자 바루흐 데 스피노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보존이 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성장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자이다. 대조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더 고려하는 윤리학도 있다. 여기서는 개인의 중요성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로는 스토아 학파의 세계주의, 동족연대주의, 공리주의 같은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윤리이론이다. 이 말은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뜻하는 자기중심주의라는 말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에고이즘의 학설은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철학 문제보다는 개인 및 개인의 관심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과 더 관련이 있다.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완성을 추구한다고 본다. 에고이즘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모든 인간은 본래 에고이즘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위 하는

심리적 에고이즘과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가정했을 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하는 윤리적 에고이즘이 있다. 심리적 에고이즘과 윤리적 에고이즘의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심리적 에고이즘은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윤리적 에고이즘은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한다.

즉, 심리적 에고이즘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자기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윤리적 에고이즘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행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따라야 할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그 규칙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준수했을 경우 합리적 에고이즘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규칙들을 무시할 경우 비합리적 에고이즘으로 다시 구분된다. 합리적 에고이즘은 앞으로 발생할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예측하는 것에 비해 비합리적 에고이즘은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마음』의 주인공 선생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평소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 두었던 친구 K를 도덕적 배신까지 자처하며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이용하여 시즈와의 결혼을 감행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유사점이 있다.

반면, 『마음』에서는 주인공 선생의 심리 변화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철저한 삶을 주장하면서도 불합리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선생의 모습이 이 작품 전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주인공 선생의 불안과 긴장의 연속성에 이어진 시간적 공간이 반복되면서 인간 심리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결국 K의 자살에 대해 평생 마음속 큰 죄를 짊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자살이라는 고 해를 통해 죽음만이 그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심리 묘사를 하고 있다. 『마음』 두 작품에 나타난 에고이즘을 통한 인간상」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논자가 분석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삶을 살아가는 수단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성실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게 될 때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매사에 주저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할 때 기회는 지나고 좌절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공 선생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평소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 두었던 친구K를 도덕적 배신까지 자처하며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이용하여 시즈와의 결혼을 감행하는 욕망을 묘사하고 있는 유사점이 있다.

반면, 『마음』에서 주인공 선생은 숙부에게 배신 당한 뒤 인간에 대한 불신을 느끼지만,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지 않고 옛 친구에게 맡기는 모습이라든지, 하숙집의 딸 시즈를 보고 이성의 감정으로 인간으로서의 끌림을 느낀다. 『마음』의 전반적 흐름 구도를 잡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당시 선생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모순적이고 불안이 가득 차 있다. 『마음』의 주인공 선생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인간의 의식주에 관한 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지식층의 인물이다. 선생은 자신의 에고이즘을 깨닫는 순간 완벽한 이성적 본능에 충실하여 오로지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사회와 격리된 채 불합리하고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유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는 아무리 완벽하고 철저한 삶을 살아가려 해도 인간은 모두 에고이즘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에고이즘을

통해 나타난 모순된 인간의 모습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은 모두가 에고이즘을 내재하고 있으며, 에고이즘이 낳은 모순적이고 인간의 어둠을 말하면서 삶과 인간에 대한 부정의식을 보이고있다. 선생이라는 인물 창조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노력을 보이며 삶의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주인공의 인간상을 통해 인간 마음에는 하나의 인간상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제 3자로 인한 요소로 인해 금방이라도 다양한 모습의 인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 K의 자살

나카히로(中広, 2010)106)는 K의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한다. 결행의 장소부터 상황을 보아서 “일종의 복수를 위한 죽음”이라고 판단하고, 자기애성격을 가지는 사람에게 특징적이라고 한다.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선생”, “아가씨“ ”아가씨의 어머니“를 포함한다고 한다.

아사다 류(淺田隆)는 마음의 등장인물에서 선생도 K도 소세키가 만들어낸 인물이며, 무사도 정신으로 무장한 노기 장군의 순사는 메이지 천황의 죽음이 그 사회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메이지 천황 죽음과 등장인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했다. 오케타니 히데아키(桶谷秀昭)는 작품 마음 에서 메이지(明治) 정신에 의해 순사(殉じて死ぬ)한 사람의 인물을 그렸다.작품 속 선생에게는 홀연히 기억 속에 되살아난 메이지 정신에 해당하며,소세키가 마음 에 선생을 쓴 것은,오랜 일본의 전통적인 이론인 메이지 정신으로 자신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즉,작품의 선생과 메이지 정신을 연관하여 논을 전개하고 있다.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예전에 작품 마음에서 선생의 죽음 후 남겨진 부인과 나와의 관계에서,성적인 교섭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비춘적이 있다.또 작품 속에 있어서 가장 금기시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성(性)영역의 문제를 드러내어 동성애와 이성애에 대해 논하였다.세키타니 유미코(関谷由美子)는 마음 에서 인간은 여차하는 사이에 갑자기 악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고 인간관계의 위험성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범죄와 신성,찰나와 영원,그리고 전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논하였다.

## 타 논문 요약

기무라 이사오(木村功)는 선생의 이론적인 면은 유신(維新)전의 도덕에 대응하면서, 자유와 고립을 통한 자신의 충만한 일면은 유신(維新)후의 도덕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고 논한다. 따라서 작품 중에 분열한 선생상과,해륙양서동물(海陸兩棲動物)이라고 말하는 소세키의 발언은 통한다고 논하였다. 권혁건은 마음에 묘사된 경동맥 자살과 할복자살은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본적인 자살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근현대문학 작품에 나타난 자살 방법은 투신자살과 액사자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묘사된 죽음과 한국문학 작품에 그려진 죽음에 대하여 비교 고찰했다.

신현주는 소세키가 말하는 문학연구 태도로서의 자기 본위라고 하는 것과 소세키의 많은 작품에 흔히 나타나는 에고이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던 숙부로부터 재산을 횡령당하고 이를 계기로 친구 K를 배반하고 시즈와 결혼한 주인공 선생의 행위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에고이즘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논하였다. 서영식은 마음 에 나타난 전통 계승의 구조 라는 논문에서 선생의 아버지와 숙부(봉건 세대),선생과 K(반봉건.반개화 세대),그리고 나 와 형

(개화 세대),이들 각각의 짝은 연령적으로 비슷한 만큼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세대이다. 그러나 가정에 있어서 입지의 차이로 인해 장남과 차남은 상대적으로 각각 보수성과 개혁성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논했다. 그리하여 이들 장남과 차남은 각각 다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격 및 행동 양상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메이지 시대 45년 동안에 이처럼 많은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 김민상의 논문 감상문- 작가 약력에 관한 논문을 참고

### 다시 조망하는 마음

김민상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마음’은 그 중,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표현론적 관점과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을 주로 사용하며 읽었다.

‘마음’은 분명 나쓰메 소세키의 자전소설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문학작품이든 완전한 창작은 있을 수 없고 인물과 배경에 작가가 살아온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자전적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작품 감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었다.

‘마음’에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여러 등장한다. 일본의 개화기인 메이지 말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는 근대적 고등교육 기관인 제국대학을 졸업했는지로 구분된다. 저자인 나쓰메 소세키 역시 제국대학 출신이다.

그중에서도 특출난 인물로 당시 서구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으로 국비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이었다. 갓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던 당대 일본 상황을 생각해볼 때, 이는 소세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본 전통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 유학 경험을 통해 서구화된 시선을 갖고 아직 서구화가 완료되지 않은 당대 사회를 조망했기 때문이다.

소세키는 현대 기준으로는 다소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유신 이후 집안이 몰락했고 양자로 보내졌지만, 10살이 되기 전 다시 원래 집안으로 돌려 보내졌다. 이러한 이력은 ‘마음’의 k에게 반영되었다. 성인이 되기 전 나쓰메 소세키의 아버지는 소세키에게 집안의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유언하고 세상을 뜬다. 그러나 소세키는 친척들의 방해로 유산을 강탈당하고 만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이력은 선생님에게 반영되었다. k와 선생님 모두 제국대학을 졸업한 근대적 지식인임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두 인물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쓰메 소세키 본인의 일면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문화지만, 일본에서 연호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연호가 바뀌는 것을 일본인들은 한 시대가 바뀌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음’의 시대적 배경인 메이지와 쇼와의 전환기는 일본의 개화기와 맞물려 전근대적 구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마음’에서는 이러한 메이지의 종말과 함께 ‘순사’한 노기 대장이 주요하게 언급된다. 수치심과 자살(할복) 그리고 천황(일왕)이라는 일본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말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과 그리고 민주화까지 겪은 박완서 작가는 자신이 500년은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전근대 농촌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를 겪은 것이 과거 500년 만큼의 변화로 느껴진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의 삶을 보며 나는 박완서의 그 말이 생각났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의

가장 많은 변화와 사건을 겪은 세대의 대표 작가이다.

### 3. 이세현의 논문 감상문- 마음 단상이란 논문을 참고

#### 나쓰메 소세키 [마음]

마음이라는 소설에서는 죽음이라는 강한 주제가 소설 전체를 뒤감고 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주인공의 마음이 선생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한 주인공의 마음을 따라 선생님의 수수께끼 같은 마음을 궁금해한다. 선생님은 누구일까? 선생님은 '지식인'이라는 설정으로 우리에게 입력되어 시작한다. 주인공의 눈에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진다. 하지만 소설을 읽는 내내 우리는 의심하고 의미를 해석하려 노력한다. 똑같이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다. 과거를 들추어 선생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려 생각하고 궁금해한다. 그를 나쓰메 소세키도 예상하는 듯 전체적인 주제의 중심 사건을 소설의 후반부에 배치하여 그 내막을 알려주기에 이른다. 똑똑한 사람이 왜 사람들과의 교제도 없이 인간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주인공에게 선을 긋는 듯하는가. 선생님의 인간에게 배신당하여 크게 상처 받았지만 그만큼 큰 상처를 똑같이 주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의 작은 아버지, 선생님이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의 오랜 친구 K. 기준은 애매하지만 이 둘은 선생님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알팍하고 속이 뻥히 보이는 수에 당하게 된 선생님은 무디고정절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지식인'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사랑이라는 감정에 급진적으로 행동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은 얼마나 크게 쌓였겠으며 또 사랑이라는 기준에 친구를 죽음으로 다다르게 한 자신은 얼마나 실망이었겠는가. 그 때문에 선생님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죽음은 앞서 말했듯 이 소설 전체를 뒤감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도 결코 평면적이지 않을 것이다. 먼저 K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 논문에서는 K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에 대해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이성에게 주는 마음이 스스로 실망스러워서 2. 자신의 친구 곧 선생님의 배신이 절망스러워서 3.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공허하고 외로워서. 나는 이 모든 이유들이 포함 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지식인인 것처럼 K도 한 지식인이다. 이성으로부터 느끼는 감정들을 스스로 낫설게 느끼고 불만적으로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 기준이 너무 쎄 탓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K는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 가족은 없고 사랑도 없고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선생님이라는 친구 한 명이었는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은 기둥이 되었다. 그런 공허함 속에서 K는 그 나이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인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이 사랑은 K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랑이 아닌 공허함에 대한 당연한 도피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깨달은 K의 공허함은 자살로까지 연결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3번의 마음까지 동시에 드는 생각이니 이가 얼마나 처참하였는지 예상이 간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죽음은 어떤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K와 선생님의 죽음의 공통점은 자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비겁하고 나약한 방법인 자살. 하지만 작가에게 자살은 다른 의미였다. 나쓰메 소세키는 자살에 대해서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자살은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선택권이다. 병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은 곧 폭력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 기반을 파악하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자살이 잔인하리만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깔끔한 마무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만약 선생님이 병사로 죽었다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추한 모습으로 남았겠지만 자살이라는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처절한 인생을 깔끔한 단면으로 남기고 남은 이야기를 주인공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소설의 좋은 끝맺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현대에서 자살은 목숨을 끊는 가장 비겁하고 나약한 방법이지만 그 당시 작가의 국가적 문화는 달랐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요소가 적당한 방법으로 적용 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자살은 장치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결말로 쓰이기 위한 방법이었고 소설 내 의미로서는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의 고통으로 표현 되었다고 생각한다.



#### 4. 나도현의 논문 감상문- 죽음에 관한 논문을 참고

내가 읽었던 죽음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설명해주고 각 죽음마다의 분석을 달았다. 대부분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 별 생각은 없었고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역시 K의 죽음을 분석한 부분이었다.

K의 죽음을 표면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인생관에 따라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여기저기 사람에게 가족에게 치이고 정착한 하숙집에서 마음을 열었던 친구와 하숙집 딸에게 마저 배신을 당해,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분석과 덧붙여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무겁고 강력한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은 그가 어릴 적 승려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는 한층 다른 시선으로 봤다는, 내면이 그렇게 단단하게 된 이유까지 납득이 가게 말을 하여 인상깊었다.

말을 나누었던 것 중 자살이 비겁한 짓이다, 도망치는 것이다, 진정한 속죄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논문에선 가볍게 자살로 인한 속죄로 바로 생각을 하여 의외였다. 죽음은 죽음일 뿐인데 내가 너무 많은 의미를 함유했나 되돌아보게 됐다.

선생의 죽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 본인이 죽으면 혼자 남겨지는 아내를 걱정하여 쉽사리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말이, 난 주인공이 등장하여 이후로는 사모님과 나의 관계를 기대하는 말 처럼 들려 묘했다.

#### 5. 논문에 대한 질문들 이야기하고 토론

-선생님의 죄의식은 마음의 병이었을까?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병치레의 관점에서)

-종교와 엄격한 윤리의식

-근대 일본의 이데올로기

-악과 선인에 대한 기준과 고정관념

-사람을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경험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자들을 나눌 수 있는가?

-국가주의 봉건사회, 개인주의, 현대 사회의 모습은?

-K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하는가?

나도현: 시즈가 너무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시즈라는 인물이 되게 선생님이나 케이랑 다르게 사교적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질투심 유발도 좀 됐을 거고.

최정현: 선생님은 소설에서 웃는 여자 좀 싫는데 혼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선생님이 사회성이 없었지, 시즈는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논문들 보면 시즈라는 여성 어떤 인물인

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즈라는 인물을 통해 나쓰메 소세키의 여성관을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이세현: 시즈가 약간 좀 의존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남편 빼고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부모가 다 죽고 시즈는 약간 전형적인 시대에 편승한 여성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란 인물이 안 답답했을까요?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처럼 산속에 숨어가지고 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김민상: 여기 선생님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상태에서 도쿄 제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즈가 선생님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에서 결혼한 거니까 참고 살아야겠죠. 그시대의 진정한 현모양처인 듯이 말이에요.

최정현: 민상님은 선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김민상: 뭐 선은 없다.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없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라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과 악 있다. 이거는 근데 톱플할 때 보면 명확하잖아요. 재는 진짜 아니야. 톱플 이게 저희도 이렇게 만나서 그런 거지 톱플을 하면은 갑자기 선인이었던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싶지만 약간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벗어난 사람은 악인까지는 아니어도 좀 못 배웠나 생각들죠. 약간 횡단 보도 무단 횡단하고 이런 사람은 나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방금은 남들한테 피해 끼치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이라는 걸 여기는 사람

나도현: 자기한테 여유가 없으면 그런 거 전혀 없고 그게 사실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일 텐데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 자기도 있어야지 남도 있는 거니까 제가 죽으면은 못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1순위니까 일단은 자기의 여유가 있으면은 베푸냐 안 베푸냐 이거로 나눌 거 같아요.

이세현: 반대로 넉넉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 자기 거도 부족한데 나눠줄 수 있어야만 이타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정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장애인 딸을 30년을 키웠는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거야. 어머니가 근데 이유가 딸이 원래도 지적 장애인이고 뇌병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죽일 때는 암에 걸렸나 딸이 대장암 그러니까 딸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죽인 거야.

댓글에 누가 어머니한테 비난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달리고 마음이 아팠어

나도현: 이거는 어머니가 딸을 먼저 생각한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네

김민상: 그러면 가장 인간이 이타적이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애를 낳았을 때 그러지 않을까? 그 애한테만큼은 진짜 엄청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뭔가 책

		<p>임 의식이랑 이타주의랑 같이 연결이 되니까. 내가 책임질 1위면 다 이타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p> <p>나도현: 그 경우에도 자기애와 남의 경우를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 애의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이타적이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약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p> <p>이세현: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도 되게 이타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지 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p> <p>최정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뭔가 책 읽는 거 보면 되게 국가나 정책이나 시민들을 위한 뭔가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니까 그냥 진짜 사람들은 저털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어 일단은 나보다는 이타적이지 않을까?</p> <p>김민상: 혹시 모르지 겠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타주의가 아닌 지독한 이기주의일지도 모르지</p> <p>최정현: 이 소설의 핵심적인 거는 서구 사회가 살짝 문명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되게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다가 확 개인화가 돼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고 이즘이라고 해서, 자기만 자기신의 개인의 삶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이 책과 연결되고 이런 논문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p> <p>이세현: 저는 일단 극한의 개인주의자예요.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협업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사는 걸 더 잘할 수 있다.</p> <p>나도현: 만약에 개인주의면 이미지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고 볼 수 있을 거 같고, 개인주의가 아니거나 그러면은 집단에서의 나의 이미지나 위상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남의 평가, 평판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선의 기준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자들은 이타주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p> <p>김민상: 이기주의는 개인주의와는 상관이 없고 자의식이 강할 순 있는데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p>
--	--	--

4주차	일시	1월 18일 19:00 장소명 투썸플레이스 노원문화의거리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최정현 (2111154)	참석 여부
		이세현 (2011048)	O
		김민상 (231124)	O
	나도현 (2331124)	O	
진도	도서명: 마음	책을 통해 받은 영감을 토대로 쓴 각자의 문학작품 및 서평 합평	



[좌측부터 김민상, 이세현, 나도현, 최정현 ]

토론 내용

토론내용: 각자의 문학작품 및 서평 합평

### 1. 최정현의 시

제목:두 번째 마음

나와 너의 배를 갈라도 피가 튀기지 않았다  
 매만지던 테두리가 자라날 때마다  
 합일되기를 위해 올리던 기도  
 오랫동안 갈라져 두 쪽으로 나누어지면  
 다른 길을 가려고 한 발이 두 발로, 두 발은 다시 네 발로 나누어져 있었다  
 자신의 머릿결을 만지던 한 손은  
 두 손이 되어 너의 머릿결을 만지니  
 잠시나마 기도는 이뤄진 듯도 했다

다시 자라난 기도의 시선은 내가 아닌 너를 향해 있었다  
 기도 끝에 들려온 음성. 죄많은 소녀. 아직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한 소녀. 너의 죄  
 가 끝나지 않는 것은 피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 피없이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는가?  
 피없이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가?

나는 너를 낳았음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어떤 기도는 선택의 종점에 서서 여러 피를 뭉치기도 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피를 뭉쳐 나와 너의 배에 묻혀가며 말이다

더 이상 너가 첫째인가, 내가 둘째인가는 중요치 않았다

너와 나는 두발의 두손을 가진 원자적 개인, 각각의 사람  
태초에 우리는 같은 배를, 같은 손을 쓴다  
고통 역시 너와 나누고 나누면 어느새 곱하기가 되었다  
같은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피를 나눌수록 내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까  
이해받고 싶은 너의 피를 볼 수 있었을까  
나를 미워하는 거야 쉽지, 너를 미워할 수 없을 뿐이다

기도의 시선이 너를 향해 의식의 선언을 막아내니  
나는 이 모든 체험이 종교가 되길 기원했다  
모든 죄를 너가 덮기를 바란다고

김민상: 일단 여기서 ‘피’라는 것의 의미가 너무 궁금했다. ‘피’의 상징이 죄책감과  
나와 너를 이어주는 것이라니 의미가 깊다고 느꼈다.

이세현: 한 사람의 양면적인 마음을 표현한 점이 소설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모습  
과 같다고 느껴졌다. 역시 내용 자체가 어렵지만 여러 의미를 담으려고 한 점이  
좋았다.

나도현: 어렵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와닿았다. 기도를 하는 것, 무언가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점이 소설의 감상과 잘 이어지는 것 같다.

## 2. 김민상의 시놉시스

제목: 검은 양소설

시놉시스: 몇 년 전, 같은 팀에서 일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름도 가물가  
물한 그 남자는 할 말이 있다며, 내게 잠깐 만나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연  
락하는 과거 동료들도 모두 같은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나 역시 꺼림  
칙하지만, 그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수락한다. 과거 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내가 찾아 들어간 팀은 서른다섯 살인 팀장을 포함하여 팀원 모두가  
20·30대인 ‘젊은 팀’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임 반장, 혹은 작업복으로 언제나 검정  
후리스를 입어 ‘검은 양’으로 불리는 남자를 만난다. 임 반장은 팀에 들어온 연차  
가 2년이 넘었지만, 기공(숙련공)이 되기는커녕 조공(초보자) 한 사람 몫도 하지  
못했고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팀에서 업신여겨지는 존재이다. 처음 팀에 들어간  
인원들 모두 얼마 안 가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임 반장을 괴롭히는 것에 동참  
한다. 나는 공사 팀에 들어왔지만,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잠시 왔을 뿐, 다른  
팀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일종의 자기방어적 심리  
로 나는 자신에게 ‘관찰자’라는 역할을 부여해 선을 긋는다.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목적이 같음에도 마치 르포를 쓰기 위해 취재를 왔거나 소설 소재를 찾기 위해  
왔다는 듯이 생각한다. 퇴근하고 숙소에 들어와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지 않  
고 방에 들어박혀 책을 읽는 행동 역시 같은 이유였다. 그러나 결국 나도 관찰자  
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나도 임 반장만  
큼은 아니었지만, 일을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임  
반장을 괴롭히는 것이 팀의 일원이 되는 통과 의식으로 느껴졌다. 또한, 비난받는  
내부의 적, 임 반장이 존재함으로써 모두가 미숙한 ‘젊은 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 반장에게 그런 역할이 부여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제2의 임 반장 역  
할을 맡게 될 것이고 그게 자신이 될 게 두려워졌다. 많은 생각 끝에 나도 임 반  
장 괴롭히기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퇴근 후 책을 읽는 날보다 맥주를 마  
시는 날이 늘어갔다. 팀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소한 문제였지만, 3스트라이  
크 아웃 제도인 현장 특성상 팀장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  
았지만, 팀장은 임 반장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한다. 그때 나는 임 반장의 단  
가(하루 일했을 때 일당)가 11만원(다른 초보 팀원들은 14만 원)임을 알게 된다.  
한 사람이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서 팀장에게 20만 원을 주고 팀장이 팀원에게 급  
여를 주는 시스템상, 임 반장이 하루 출근할 때마다 팀장은 9만 원씩을 남기고 있  
었다. 나는 팀장이 임 반장을 계속 데리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임 반장은  
간단한 일도 맡기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항상 만근했기 때문에 팀장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었다. 나는 부조리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팀원들



과 대화하던 중, 나와 같은 날, 같이 들어왔던 팀원 전부가 학력을 속이고 돈을 벌러 온 대학생들이임을 알게 되었다. 방학이 끝나면 그만둘 대학생들을 팀원으로 뽑는 팀장은 드물기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숨긴 것이었다. 대학생인 팀원들이 모두 그만두면 팀은 인원이 부족해 현장에서 쫓겨날 운명이었다. 나는 아이러니함과 동시에 쾌감을 느꼈다. 임 반장이 출입 카드를 잃어버려 현장에 출입하지 못한 날이 있었다. 그날 나와 같이 팀에 들어온 대웅이 임 반장을 대신해 큰 비난을 받았다. 대웅은 교육대학을 다니다가 처음 현장 일을 하게 되어 일이 서툴렀다. 그리고 다음 날, 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CCTV가 없는

현장이라 누구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3스트라이크 규칙을 떠나 팀이 통째로 쫓겨날 위기라 팀장은 수습을 위해 누군가 범인을 찾아내야 했다. 팀장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아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 말하지 않았고 결국 임 반장을 지목했다. 임 반장은 회사에서 팀을 페널티를 받아 쫓겨나고 팀은 가까스로 쫓겨나지 않고 현장에 남게 된다. 나는 일말의 동정심으로 울고 있는 임 반장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사실 안전사고를 일으켜 팀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은 임 반장도, 대웅도 아닌 나였다. 나는 그런 이유로 임 반장에게 강한 동정심을 품은 것이었다. 결국, 몇 년 만에 연락이 와 한 번 만나달라는 임 반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장소인 역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오니 진눈깨비가 휘날리고 여전히 검은 후리스를 입고 역전 광장에 가만히 서 있는 임 반장의 뒷모습에서 나는 불길함을 느낀다.

이세현: 일단 시놉시스가 너무 좋았고 위선적인 주인공의 태도가 소설 마음에서 볼 수 있던 캐릭터의 현대식 버전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내용에서 주인공들의 마음을 다룰 때 더 섬세하게 다뤄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느꼈다.

최정현: 마음에서 나온 내용에서의 위선과 이 시놉시스의 위선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 누군가를 동정하면서도 외면하는 그 마음을 소름끼치게 잘 담았다고 생각한다. 되게 섬세하게 담아낸 것은 소설 마음과 비슷한 전개라고 생각한다. 또 오히려 임 반장이 마지막에 복수를 하기보다는 주인공에게 고마워하는 점이 어찌면 인간 심리를 잘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도현: 사실 임반장과 그 주변인의 태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용의 전개가 재밌는 건 맞지만 설득력 있으려면 환경적인 요소들이 더 섬세하게 그려져야 할 것 같다.

### 3. 이세현의 시

제목: 답신

끝없이 메워지는 파도 위 사람들의 머리를 지나  
반짝하니 빛나던 파도의 울음은 당신에게 몇 초를 더하였습니다

몇 자 적어 놓는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닐테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메마른 지붕 밑으로 드리웠던 것이  
온기 같은 것이 아니라 사념이었다면  
저는 그 곳으로 가보지 않으렵니다

무덤 앞 위흔곡은 사분십사초  
우리는 그만큼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생은 흩어지는 음표 되어 고꾸라지고 희미해지고  
당신의 향년은 어림잡아 구분오십초  
답신을 남기는 시간까지 더하며 십오분은 채워드립니다

지금쯤이면 구면인 낮들을 보셨을지  
그 낮들 얼굴 밝을지 붉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생애는 본래 나에게 몇 달이나 되었을까요  
유약한 저희들의 움직임은 생애를 몇 달이나 지나지 않습니다.

김민상: 내용 자체의 완결성이 좋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점이 신선하다.  
마음에서는 주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과 편지에 답을 보내는 점이  
공감되었다.

최정현: 어투가 되게 단호하고 조금 싸늘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인공이 한 층 달라  
진 정서를 내뿜는 것이 신선했다. 주인공이 한층 성장한 것인지, 흑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했다.

나도현: 몇분 몇초인지, 위헌곡같은 표현들이 되게 차갑고 매서운 느낌이 들었다.  
마음에서 죽음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고 근대사회의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느꼈다.

#### 4. 나도현의 서평

마음은 신념으로도, 죄책감으로도 표현된다. 소세키의 소설 '마음'은 사람의 다양한 마음을, 내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마음'은 주인공 '나'의 시점으로 전개되며, '선생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1부, 주인공 아버지의 죽음을 그린 2부, '선생님'의 유서를 편지 형식으로 풀어낸 3부로 이루어진다. 지식인이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선생님'의 태도는 주인공에게도 독자들에게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1부와 2부에서는 이러한 호기심을 극대화하고 책의 하이라이트인 3부에서 의문점들을 해소해 준다.

'선생님'의 태도에는 사연이 있었다. '선생님'은 친구 'K'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멍멍하게 살 수 없었다. 기댈 가족 하나 없고 고지식했던 'K'는 금전 문제에 부딪혀 정신도 몸도 망가져 갔다. '선생님'은 'K'를 위해 자신이 하숙하던 곳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자신도 하숙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K'또한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K'는 하숙집에서 건강을 되찾았고 상황은 좋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선생님'과 'K'는 하숙집 주인의 딸을 좋아하게 된다. 'K'의 마음을 알게 된 '선생님'은 자신이 'K'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결국 '선생님'은 'K'보다 빨리 그녀의 어머니께 마음을 고백하고 그녀를 쟁취하기에 이른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K'는 유서와 함께 하숙집에서 자살한다. '선생님'은 뜻하던 대로 하숙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녀의 순수함이 '선생님'을 더욱 힘들게 했다. 결국 '선생님'은 사랑을 하지도 배움을 설파하지도 많은 돈을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선택하다 자살을 결심한다.

불행의 시작인 'K'의 자살, 그 이유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K'의 신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K'의 신념은 확고했고 생각은 깊었다. 목표를 위해 합리화를 하는 일은 절대 없는 의지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여자로 인해 흔들렸다. 유일한 친구에게 그녀를 빼앗겼을 때 또한 마음이 요동쳤을 것이다. 가족도 돈도 친구도 없었던 'K'에게 남은 건 완고한 의지뿐이었지만, 여러 차례 마음의 동요를 자각한 'K'는 자신의 의지를 의심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신념이, 마음이 그를 자살로 몰아넣었다.

'선생님'을 괴롭힌 것 또한 마음이다. '선생님' 또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배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본인을 배신한 작은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했고 사람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K'와 하숙집 딸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의심을 들게 했다. 의심은 '선생님'을 끝없이 괴롭혔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K'의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그녀를 쟁취하였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자신 또한 작은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추한 인간이었고, 'K'의 죽음은 이 죄책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잊을 수도 없었다. 'K'를 떠올리게 하는 부인과 매일 함께 살았다.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신 또한 추한 사람이라는 자각의 마음이,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의 마음이 결국 죽음으로 그를 몰고 갔다.

소세키의 소설 '마음'은 마음의 동요와 변화를 잘 표현한 책이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혼자 짊어지려 한다면 책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대체로 생각이 많아지면 그 끝에는 부정적인 망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장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가끔 찾아오는 마음의 풍파를 나눌 사람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존재하기에, 생각이 많아진다면 마음과 시야를 넓히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좋을 거 같다.

김민상: 내용이 정갈하고 소설 마음의 중요한 점을 잘 이야기해준다고 느꼈다.

이세현: 우리의 활동을 잘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서평이라고 생각했다.

최정현: 소설 마음은 고독한 인간상을 그리는데 마지막 문장은 조금 비약적인 논리가 아닐까 싶었다. 좀 더 마음의 풍파를 나눌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더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소설의 톤에 맞게끔 혼자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이야기해주거나 하면 좋은 서평이 될 것이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최정현 (2111154)	<p>제가 매주 정해오는 주제나 책의 분량, 논문 요약본, 질문거리, 글 과제들이 분명 버거웠을텐데 잘 따라와준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팀원들과 같은 동아리로서 써온 글만 합평하고 다른 세계관을 엿보는 토론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니 같은 세계관에서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나눠 즐거웠습니다. 또 팀을 나눠 토론하면서 사람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책을 읽는지를 확인해보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연습도 할 수 있었고 대학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기쁩니다. 원래 정해진 1시간보다 초과하여 3시간씩 지날 정도로 열렬히 토론하다보니 기록하는 것을 까먹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해보면 좋겠다고 매주 느꼈고 누군가는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해 고찰할 수 있어 인문학도로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다보면, 훗날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좋은 팀원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p>
	2	이세현 (2011048)	<p>하나의 문학책을 읽고 이렇게 깊게 토의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행해지는 수준 높은 토론들이 소셜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입체적 감정들이 얼마나 잘 녹아들어있는지 알게 해주었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잘 참여해준 멤버들 너무 고맙고 자료, 주제 꼼꼼히 준비해주신 정현님께도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다음에도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네요~</p>
	3	김민상 (231124)	<p>동아리 친구의 권유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 같이 모인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취향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반복하여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 경험은 이후 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학교와 클럽장 그리고 독서클럽 활동을 같이 한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p>
	4	나도현 (2331124)	<p>즐거웠습니다. 일정이 조금 타이트했지만 그 전부터 비교과나 돈에 목적을 크게 두지 않고 순수한 열정이 있는 활동을 하고싶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걸 조금이나마 느낀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특정 인원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본인의 선택이고 나머지 부원들께서 잘 따라 주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활동이 있다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p>